

할렐루야!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세세에도 여전히 발생하는 두렵고 떨리는 사건들 가운데서도 세심히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아버지의 손길을 의지하며 나아갑시다. 귀한 주의 재능들을 지켜 돌보아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레위기 26장 6절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www.chpress.net

주후 2023년 2월 4일 (토) 제 1908 호

□ L.A. :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 323-665-0009, 213-674-7982 Email: lachpress@gmail.com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400 Email: nychpress@gmail.com

새해 3주간 총기난사 벌써 38건, “2023년의 미국 현 주소”

BBC/CNN, 미 총기문화 세계에서 유일무이, 치명적 폭력의 악순환 단초 제공

지난 달 23일 하프문베이 지역 공장 2곳에서 사건이 발생하며 7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당하는데 이어 이후 몇 시간 뒤 조금 떨어진 오글랜드의 어느 주유소에서도 어느 귀한이 난사한 총에 7명이 다치고 1명이 사망했다.

이보다 앞서 음력설 전날 밤이었던 21일엔 로스앤젤레스 인근 몬테레이 파크의 어느 댄스교습소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미국에서 이러한 사건이 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느껴진다면, 제대로 느낀 것이다.

총기 난사 사건에 대한 정의는 조금씩 다르지만, 미국 내 총기 관련 사망 및 부상자 수를 공개적으로 집계하는 비영리 단체 '총기 폭력 아카이브'는 총격범을 제외하고 4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사건으로 규정한다.

그리고 이러한 정의에 따라 올해 초에만 미국에서 40건이 발생했다고 한다. 이는 1월 기준 사상 최다 횟수다.

지난해의 34건이 기준 최다 횟수였으며, 2014년부터 2022년까지 1월 한 달 기준 총기 난사 사건 발생 횟수는 평균 25건이었다.

이렇게 사건이 급증하자 미국에선 익숙하면서 매우 정치화된 논쟁에 다시 불이 붙었다. 바로 총기 소유권 및 관련 규제에 관한 담론이다.

또한 왜 이토록 총기 난사 사건이 잦아지는지 그 이유를 묻는 이들도 있다(Why number of US mass shootings has risen sharply).



나이지리아 | Pentecostal Fellowship of Nigeria 플라도우 주 지부 의장 Steve Dangana

크리스천은 자기 방어를 위해 총기를 가져야 할까?

CT, 지구촌 9개국 크리스천 리더들의 총기 소유에 대한 입장

미국에서 올해 많은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다. 퓨 리서치 센터에 따르면, 미국의 백인 복음주의자들은 다른 미국 교인들보다 총기를 소유할 가능성이 더 높았고(41%), 총기 소유가 자신들을 더 안전하게 느끼게 한다고 말할 가능성이 더 높았다(77%). 백인 복음주의자들의 절반 이상(57%)은 총기를 소지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자기 보호라고 답했다.

퓨 센터의 2017년 조사에서는 38%의 백인 복음주의자들이 총격에 집단으로 희생되는 것을 걱정하고 있고, 61%는 폭력 범죄에 희생되는 것을 걱정하며, 66%는 테러 공격에 의해 희생되는 것을 걱정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그러나 매 주일 예배에 정기적으로 참석하는 미국인들은 덜 정기적으로 참석하는 사람들(27% 대 31%)보다 총기를 소유할 가능성이 낮다는 연구 결과도 퓨 센터는 발표했다. 또한 종교적 헌신도가 높은 미국인들은 헌신도가 낮은 사람들(26% 대 33%)보다 총기를 소유할 가능성이 낮았다.

크리스챤너 투데이(CT)는 최근 9개국의 교회 리더들에게 그들 국가에서의 총기 소유 가능 여부와 이 주제에 대한 그들의 신학적, 성경적 견해를 알아보기 위해 연락을 취했다. 그들의 답변을 그리스도인들이 개인의 안전을 위해 총기를 소유해도 된다고 믿는 사람들부터 그것은 그들의 신앙에 위배된다고 믿는 사람들까지 배열하였다(Should Christians Own Guns for Self-Defense? A Global Snapshot: Leaders in nine nations explain how they think theologically and biblically about personal safety as mass shootings plague the world).

나이지리아 | Pentecostal Fellowship of Nigeria 플라도우 주 지부 의장 Steve Dangana

다. 그리스도인들은 폭력과 악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평화의 수호자와 피스메이커로 부름을 받았다.

나이지리아 시민들은 당국의 허가를 받는 한 총기를 소유할 수 있

(3면으로 계속)



발행인 김철 김성국 목사



푸른초장 김영창 목사



독후감 공모전 당선작 한익승

더욱 찾아진 모든 유형의 총기 폭력

데이터를 살펴보면 살인에서 자살, 총기 난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유형의 총기 폭력 사건이 미국에서 대부분 더욱 빈번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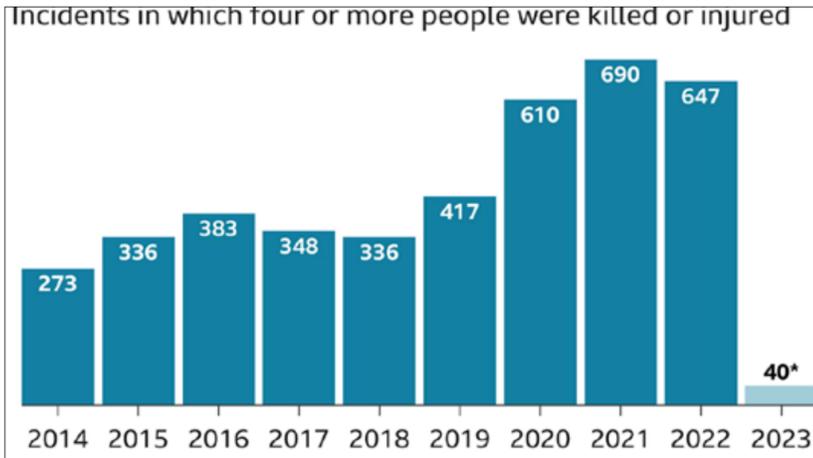
일례로, 2019년 기준 미국 내 총기 관련 사망자는 3만 3599명이었는데, 2022년엔 31% 증가해 4만4290명이 사망했다.

사망 원인 대부분은 총기에 의한 자살이었으며, 살인이 그 뒤를 이었다.

총기 난사 사고는 대중의 관심을 끌며 경각심을 일으키긴 하지만, 사실 총기 관련 사망 원인에서 차지하는 부분은 크지 않다. 2020년 기준 총기 난사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전체 총기 사망자의 1.1%였다.

그러나 여전히 이러한 총기 난사 사고는 최근 몇 년간 급격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미국에서 가장 사망자가 많았던 총기 난사 사건 10건 중 9건이 2007년 이후 발생했다.

대규모 총기 난사 사건은 본질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경우



가 많기에 정확한 급증 원인을 규명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를 설명할만한 몇 가지 요인을 찾아볼 수 있다.

총기 소유 증가

그중 하나로 총기 소유 증가를 꼽아볼 수 있다. 미국인들은 그 어느 때보다 현재 더 많은 총을 소지하고 있다. 2020년 미국에선 2300만 명이 팔려나갔는데, 이는 1년 전인 2019년에 비해 65% 증가한

수치다. 이후 2021년에도 수치는 비슷했다.

2020년 3월 이뤄진 첫 번째 코로나19 관련 봉쇄 조치, 조지 플로이드 사건에 따른 소요 사태, 2021년 1월 미국 의사당 점거 사태 등 여러 불확실성으로 가득했던 상황 속 미 연방 수사국(FBI)의 총기 구매자에 대한 신원 조사 건수는 그 어느 때보다도 훨씬 컸다.

'존스 홉킨스 총기 폭력 해결 센터'의 공동 책임자 조쉬 호비츠는 총기 판매 증가가 "총기 특히 불확실한 시기에 나

를 안전하게 지켜준다는 생각"과 연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주유소, 댄스 교습소, 나이트클럽과 같은 공공장소에서 총기 폭력이 증가하면서 일부 사람들은 더욱 총기를 소지하고 싶어지게 된다고 덧붙였다. 즉 공포가 부채질 되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사람들은 총기 구입을 통해 두려움을 가라앉히고 싶어한다"는 설명이다.

(2면으로 계속)

월드미션대학교 신학/상담학/음악학/예배학/간호학/사회복지학 캠퍼스온라인 www.wmu.edu | 500 Shatto Pl., Los Angeles | (213)388-1000

교회인쇄물·헌금봉투·배너 Order Online 30% LOW PRICE in2printing.com 인투인쇄 T. 718-425-8505

Sharing Bread for Soul 월드쉐어USA 생명의 빵 나누기 운동 본부 말씀과 빵을 나누며 영혼을 살립니다 문의 강태광 목사 (323)578-7933

www.laguesthouse.com LA 호텔식 하숙 GUEST HOUSE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김스전기암) TEL. 213-663-9181 965 Fedora St. L.A., CA 90006 Email: laguesthouse@live.com

KAPC 2023 총회 소집공고

제47회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2023 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바쁘신 중에도 많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회기간: 2023년 5월 23일(화) - 26일(금) (3박4일)

- 총회장소: 1) LaGuardia Hilton Hotel(Prev. LaGuardia Plaz) 718) 457-6300 104-04 Ditmars Blvd, Elmhurst, NY 11364 2) 각 노회 총대님들을 LaGuardia International Airport(LGA) 공항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Newark 공항을 사용하시는 분은 도움 없이 각자 오셔야 합니다.

등록비: 총회 등록비는 아래와 같습니다(미화 USD)

	1차(1/30)	2차(3/15)	3차(3/30)
2인 1실(1인)	\$349	\$389	\$429
2인 1실(부부)	\$678	\$718	\$758
1인1실	\$599	\$639	\$679
공로 원로목사	\$175	\$215	\$255
공로 원로목사 부부	\$514	\$554	\$594

- 1. 동반 자녀 3-18세 \$170, 18세 이상 \$305(2인1실)
- 2. 총회 결의에 따라 각 노회의 공로 및 원로목사님의 등록비는 50% 할인됩니다.
- 3. 총회 파송 선교사는 선교보고와 기타 일정을 위해 2차 등록까지 해주셔야 합니다.
- 4. 총회 등록을 하지 않고 총회에 참석하는 분은 "등록비" \$150을 납부해야 하고, 식권도 별도로 구매해야 합니다(아침과 점심 \$150).
- 5. 총회에 일찍 오시거나 늦게 가시는 분 중에 호텔 예약이 필요하신 분들은 미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6. 추가된 날수의 비용은 협상된 비용 2인1실 / (1인 \$55), 부부(\$109), 1인실(\$130)으로 가능합니다.

등록안내

- 1) 총회 등록비(Check 또는 Money order)와 신청서는 총준위 회계(박정봉 장로)에게 아래 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Pay to the order: KPCQ Korean Presbyterian Church of Queens (Att: Elder James Park)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 2) 유의 사항 2차 등록 마감일인 3월30일 이후에는 호텔 숙박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등록 후 총회 불참시에는 호텔과 계약상 등록비를 반환해 드릴 수 없습니다. 사모 세미나와 관광 및 성극(모세) 무료, 선물이 준비 됩니다. Newark 공항은 픽업 서비스가 안 됨으로 피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요일 전체 관광(1인당 \$100) 총회 전후 관광은 개인적으로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총회 당일 접수는 오전 11시부터 하며, 입실은 오후 3시부터 가능하며, Check-in을 하신 후, 준비된 차량으로 10분 거리의 퀸즈장로교회로 이동하여 저녁식사를 한 후, 그 자리에서 총회 개최예배를 드립니다. 저녁 식사 후 개최예배는 7시에 드립니다. 문의사항은 언제든지 총준위원들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3) 동시통역: 영어권 총대를 위하여 동시 통역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4) 공항 안내 및 픽업(LGA) 항공권은 반드시 LaGuardia International Airport(LGA)로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시 항공사명, 도착시간, 출발시간, 사모동행여부를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LGA 공항과 호텔 사이는 눈에 보이는 거리로 7분 정도 소요됩니다. (호텔 Shuttle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공항에서 나오시면 KAPC 팻말을 들고 있는 영접위원들의 환영을 받게 됩니다. 공항에서 호텔까지는 5분(1마일), 호텔에서 퀸즈장로교회까지는 15분 거리입니다. 선교사님들과 불가피한 분들을 위해서 JFK 공항에서도 픽업을 합니다.(사전에 명기된 분들) *등록사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변경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이메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email us if there is any change or update on your registration. chungkitae1962@gmail.com, tojaesang@gmail.com

위원장: 이윤석 목사 총무: 정기태 목사 서기: 임병순 목사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제47회 총회준비위원회

발행인 칼럼

손수건도 준비합니다



김성국 목사 (کنزڤارو교회 담임)

여러 목사님들이 격려를 해주신다. '준비하시는데 많이 힘드시지요' 질문도 해주신다. '어떻게 준비하시나요?'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변이 필요하다. 오는 5월에 교단 총회가 뉴욕에서 열린다. 필자가 속한 노회와 교회가 준비하여 섬기게 될 총회이다. 어떻게 준비하고 있을까. 그 네 가지 준비는 이렇다. 첫째는 예배이다. 수백 명의 목사님, 장로님, 사모님 그리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존귀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장엄할지 생각하면 벌써 가슴이 벅차오르고 눈시울이 뜨거워진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 중심의 총회가 되길 갈망하며 준비한다. 부르신 총회에서 우리는 예배드릴 것이다. 어떤 상황에도 예배드릴 것이다.

둘째는 축제이다. 5월은 축제의 계절이다. 온 세상이 축제를 펼치기에 가장 멋진 계절이다. 어떤 축제에 가야 할지 망설일 정도로 다양한 축제가 사람들에게 손짓한다. 그러나 이리로 오시라. 오는 5월의 총회는 가장 화사한 축제가 될 것이다. 그리웠던 아름다운 사람들과의 만남이기 때문이다. 길고 슬펐던 팬데믹의 터널을 지나 새롭게 다가온 시간과의 만남이기 때문이다. 오래 움츠렸던 어깨를 펴고 함께 어깨를 걸고 덩실덩실 춤을 추며 기쁘게 노래할 것이다. 지상의 어떤 축제가 우리의 축제와 견줄 것이며, 세상의 어느 누가 우리의 기쁨을 알아갈까.

셋째는 위로이다. 이민 목회 역정은 찬바람이 휘몰아치는 광야의 길과 닮았다. 이민 목회자의 쓰라린 아픔은 주님만이 아신다. 그 험한 목회 길을 눈물을 머금고 함께하신 분들이 있으시다. 자신의 이름을 자신도 잊은 사모님들이시다. 정호승 시인은 이렇게 말한다.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야.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것이다.' 이렇게 바꿀 수 있지 않겠는가. '울지 마세요. 외로우니까 사모님이신가요. 사모님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것인가 보아요.' 그날에 주님이 사모님들의 눈물을 꼭꼭 닦아 주실 것이다. 그 흐르는 눈물을 잠시나마 닦아 줄 손수건이 이 땅에서도 필요하지 않을까. 총회가 사모님들의 눈물을 닦아줄 손수건의 역할을 하였으면 한다. 사모님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위로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

넷째는 계승이다. 총회는 여러 회무가 논의되고 안건이 처리되는 가운데 교단의 정체성을 견고하게 하는 중요한 시간이다. 그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음세대에 계승하는 일도 동시에 중요하다. 우리의 성경적인 유업들을 다음세대에 차질없이 계승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총회에서 처리되는 안건들이 성경에 얽드리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리고 회무 밖에서도 우리 모두가 성경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다음세대는 손을 내밀어 우리가 계승하고자 하는 유업들을 자랑스럽게 이어받을 것이다. 계승의 총회를 위해 성경의 다림질이 회무와 일상에 선명히 드러워지도록 기도하며 준비한다.

양극화, 불신에 불신을 낳는 악순환 가중시킨다!

에델만, '2023 지구촌 양극화 현상 심화되고 있다 / 28개국 3만 2천명 설문 조사 결과 발표'

미국의 PR 컨설팅 기업인 에델만이 실시하는 '에델만 트러스트 바로미터' 조사에서 정치·경제 양극화가 심한 '위험국' 중 한국 그리고 미국이 꼽혔다. 에델만이 28개국 3만 2000명 이상에게 당시

의 나라가 얼마나 분열되어 있으며 분열을 봉합할 수 있다는 희망이 얼마나 있는 질문한 결과 한국이 브라질, 멕시코 등과 함께 위험국 9개에 포함됐다(Navigating a Polarized World).

지난달 18일, 데이터분석 사이트 비주얼캐피탈리스트에 발표된 에델만트러스트의 '어떤 나라가 가장 양극화되었나' 인포그래픽은 그간 정량화되기 어려운 것으로 간주되었던 양극화를 간단한 그래픽으로 보여주었다. 에델만은 'y축은' 내 나라는 매우/극단적으로 분열됐다'고 잡고, 'x축은' 나는 이 분열이 극복될 것으로 느껴지지 않는다'고 정해 개인이 느끼는 각국의 분열도와 그와 관련한 희망 또는 절망감을 시각화했다.

이 정량화를 위해서는 다시 구체적으로 △경제적 불안 △제도적 불균형 △계급간 구분 △진리를 위한 싸움의 네 지표가 사용됐다. 경제적 불안은 '우리 가족이 5년 내로 상황이 좋아질까'에 대한 답, 제도적 불균형은 '정부가 비윤리적이고 무능한 것으로 판단되는지' 여부, 계급간 구분은 '더 높은 수입의 사람들이 더 많은 신망을 얻는지' 여부, 진리를 위한 싸움은 '국회나 미디어에 대한 신뢰도'를 말했다.

한국 외에 위험국에 오른 나라는 브라질, 멕시코, 프랑스, 영국, 일본, 네덜란드, 독일, 이탈리아였다. 에델만은 이들 나라들의 양극화 상황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래픽을 보면 한국의 경우 브라질 보다는 아래지만 다른 위험국들보다 더 위에 있어 문제가 심각함을 알 수 있다.

'심각하게 양극화된 국가'는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미국, 남아프리카공화국, 스페인, 스웨덴 등 6개국이었다. 이들 나라 국민들은 나라가 매우 심하게 분열되어 있다고 보았고 이 분열이 개선되리라는 데도 회의적이었다.

특히 아르헨티나는 x축과 y



축 모두 가장 먼 곳에 위치해 가장 양극화된 국가로 꼽혔다. 아르헨티나 응답자의 43%만이 5년 안에 나아질 것이라고 답했는데 이 수치는 지난해보다 17%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응답자 중 20%만이 정부를 신뢰한다고 답한 것 역시 조사된 모든 국가 중에서 가장 낮았다.

미국은 지난 몇 년간의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의 갈등, 남아공에서는 집권 여당인 아프리카민족회의에 대한 신뢰감 하락과 불평등이 양극화의 이유였다.

양극화됐지만 그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적당히 양극화된 국가'는 나이지리아, 태국, 케냐, 아일랜드, 캐나다, 호주였다.

'덜 양극화된 국가'는 인도, 말레이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UAE), 중국, 인도네시아. 에델만은 "이들 7개국 중 3개국이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는 점이 흥미롭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과 같은 경제 대국들이 양극화 위험국인 반면 경제 수준이 그보다 낮은 태국이나 케냐, 말레이시아 국민들이 적당히 또는 덜 양극화됐다고

답한 점을 주목했다. 한편 에델만은 양극화가 '불신의 원인'이자 '결과'로, 불신해서 양극화가 생기고 양극화가 다시 불신을 강화하는 사이클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또

세계 3주간 총기난사 별세... (1면에서 계속)

개인적 스트레스, 범, 사회적 경향 등

일부 전문가들은 사회 전반적으로 스트레스가 증가한 점을 원인으로 지적하기도 한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의 여파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 직업 안정성의 문제, 가족 및 주변인들과의 관계의 어려움이 가중됐다는 것이다.

'록펠러 정부 연구소' 소속 '지역별 총기 폭력 연구 컨소시엄'의 재클린 실드크라우트 임시 전무이사는 이러한 스트레스 요소가 일부 사람들에게는 "폭력적인 반응 및 행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 '비밀임무국'의 조사 결과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다. 사망자가 다수 발생한 사건 173건을 조사한 결과 그 중 약 4분의 3이 총기로 인한 사건이었던 것이다.

지난 24일 발표된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가해자의 93%가 공격 감행 전 이혼, 건강상의 문제, 학교나 직장에서의 문제 등 개인적인 문제를 겪고 있었으며, 2016~2020년 발생한 사건의 가해자 10%는 자살을 선

의 네 가지 지표 외에도 시민성(시민의식)의 침식과 사회적 구조의 약화가 우려되는 상황 역시 양극화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실드크라우트 이사는 또한 "해로운 남성성" 담론 또한 고려해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거의 모든(약 98%) 총기 난사범은 남성이었다.

실드크라우트는 이사는 "만약 총기 폭력의 근본 원인을 파헤치고 싶다면, 왜 사람들이 애초에 총을 들어 피해 대상이 누군지 상관없이 해를 끼치게 되는지 이해하는 지점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 내 총기 구매자에 관한 법 또한 문제의 원인으로 볼 수 있다는 게 일부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주는 전국에서 총기 규제가 가장 엄격한 주 중 하나라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그러나 호비츠는 현재 연방 법상 총기 박람회나 온라인 판매 등 사적인 총기 판매 시 신원 조사를 요구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전한 총기 보관이 총기 사망자 수 감소로 이어진다는 연구가 있음에도 일부 주에선 안전한 보관에 대한 법체계가 느슨하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미국에선 가능하고, 외국엔 비교적 불가능한 가치를 꼽으려면 미국에선 총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발행인 겸 편집인: 김성국. 편집국장: 김재상. LA지사장: 이성자. L.A. Office: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기독교서적센터 The Christian Book Center. 성화, 성구약자, 크리스탈강대상, 성가대-목사까운. (323) 737-7699. 인터넷 쇼핑몰: www.lachristianbookcenter.com

갈보리교회 담임목사 청빙. MA주 FEEDING HILLS에 위치한 하나님의 성회(AG)소속 갈보리 교회에서 은퇴하시는 현 목사님을 이어 후임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자 합니다. 자격요건: 나이: 40세 부터 50세 까지, 경력: 이민목회 3년이상(부목사 경력 포함), 교단: 본 교단 목사 및 타 교단 목사는 하나님의 성회(AG)교단 가입이 가능한 분, 언어: 2중 언어(한국어와 영어)소통이 가능한 분, 신분: 미국 거주에 결격 사항이 없는 분으로 영주권 후원도 가능, 학력: M.Div.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분. 제출서류: 이력서(본인 및 가족 사진 첨부)1부, 본인 및 사모의 자기 소개서 각 1부,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 증명서 1부, 추천서 2부(응시자가 담임 목사일 경우 교단 및 지방회, 부목사일 경우 담임 목사와 그외 1인)추천인이 연락처 기재하고 직접 제출, 후보 2회분(현 시무 교회 최근 3개월 이내), 개인 정보 이용 제공 동의서(서류심사 통과자에 한함)1부. 제출 마감일: 2023년 2월 28일. 제출 및 문의: E-MAIL(cavaryassembly2023@gmail.com)로 받습니다. 제출 서류는 반환하지 않고 담임목사 청빙용으로만 사용하며 청빙 완료후 폐기됩니다. 추가로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담임목사 청빙공고.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KAPC) 소속 필라델피아 영생장로교회에서는 현 담임목사님께서 65세에 은퇴하시고 선교지로 파송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새 담임목사님을 청빙하고자 합니다. 청빙 조건: 1. 교단이 인정하는 신학교 졸업 후 KAPC 소속이거나 가입이 가능한 분으로 목사 안수 후 미국에서 담임 목사 및 부목사로 3년 이상 목회 경험이 있으신 분, 2. 확고한 개혁주의 신학 위에 성숙한 신앙 인품과 리더십을 가지신 분, 3. 만 55세 이전의 나이로 다음 세대와 이민교회 미래를 위한 비전이 있으신 분, 4. 영어 소통에 문제가 없고 미국 내 체류 및 목회 활동에 결격 사유가 없으신 분. 제출 서류: 1. 이력서(가족사진 포함), 2. 자기소개서(신앙 고백 및 자신의 비전에 영향을 끼친 책이나 신학자, 목회자 인용), 3. 학력 증명서, 4. 속해있는 교단의 노회에서 발행한 안수 증명서, 5. 신학교 교수 및 명망 있는 목회자의 추천서(추천자의 연락처 포함), 6. 최근 설교 영상 2편(온라인 링크) * 설교 원고 포함. 유의 사항: 1. 제출된 서류는 후에 반환하지 않습니다. 2. 제출 마감일: 2023년 3월 15일, 3. yspastor2023@gmail.com으로 보내시고 첨부파일은 PDF file로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생장로교회 영생장로교회 706 Witmer Road, Horsham, PA 19044 http://www.yspc.org | 215-542-0288. 영생장로교회 청빙 위원회

크리스천은 자기 방어를 위해..

(1면에서 계속)
우리가 대표하기 위해 부름을 받은 영역과 오늘날 우리 세계의 현실 사이의 대조는 자기방어와 다른 비폭력적 목적으로 무기를 소지하는 것에 대해 도전장을 제기한다. 나는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인이 자기방어의 목적으로 총기를 소유하는 것이 옳다고 믿는다.

오늘날 우리 지역사회에서 증가하는 폭력의 수준은 우려스러운 양상으로 간주되고 있다. 양심을 상실한 개인에 의해 매일 무고한 생명이 죽어가는 분별없는 행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한 켠에 총기 소유 여부의 윤리적 도전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오늘날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며 실천해야 할지에 대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다.

예수님이 배신당하신 날 밤, 그는 제자들에게 칼을 들고 다닐 것을 권유했다. 그들은 칼 두 자루를 지녔는데, 주님은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말씀하셨다 (누가복음 22:37-39). 예수님이 체포당할 때, 베드로는 칼을 뽑아 대제사장의 종들 중 한 명의 귀를 잘랐다(요한복음 18:10). 예수님은 즉시 그 사람을 고치시는 것으로 반응하시고(누가복음 22:51) 베드로에게 칼을 칼집에 꽂으라고 명령하셨다(요한복음 18:11). 베드로가 칼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 자체를 꾸짖지는 않으셨다. 예수께서 주의를 추구한 것은 오로지 특정한 상황 속에서 그것을 사용하는 것뿐이었다.

성경은 우리의 믿음과 행함이라는 두 축이 맞물리고,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며, 인류에 대한 존중과 가치,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는 한 결코 그리스도인이 무기를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고 있다는 의견을 가져도 무방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자기방어나 다른 비폭력적인 사용을 위한 것이라면, 총기나 다른 무기를 소유하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거나 부적절하다고 느낄 이유가 없음을 기억해야 한다.

남아프리카 | 남아프리카 북음주의 연합의 성별로 인한 폭력 반대 운동 책임자 Siki Dlanga: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21세 혹은 그 이상의 나이가 되면 합법적으로 최대 4개까지 총기를 소유할 수 있다. 각 총기는 면허를 받아야 하며, 면허에 따르는 엄격한 규정이 있다.

그리스도인의 총기 소유 여부는 개인의 양심 문제라 할 수 있다. 성경은 무기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가르친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

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고린도후서 10:4-6, 개역개정)

성경의 입장은 영적 영역에 있어서의 성도의 보호가 우선이다. 우리의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다. 우리는 모든 것이 육신의 영역에서 나타나기 전에 영적인 영역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우리는 사탄이 발명한 무기로 사탄과 싸워 사탄을 물리치기를 바랄 수 없다. 악을 물리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 능력”이라는 영적 무기를 사용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디모데후서 1:7). 사랑의 능력보다 화력에 의존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길이 아니다. ‘상호 확실한 파괴’로 서로를 위협해야만 평화를 희망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화력은 전 세계에 많은 고통을 가져왔다. 그것은 건전한 정신을 가진 문명화된 사회를 나타내는 지표라 보기 어렵다.

한국 | 경기도 용인 은혜순교회 담임 목사 김승겸:

한국에서는 총기 소지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사냥용 업종만 허용된다. 그러나 업종 역시 경찰서에 등록해야 한다.

내 생각에는, 개인의 안전을 위해 총기를 소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만약 누군가가 자신의 안전을 위해 총기를 소유한다면, 다른 사람은 더 강력한 총기를 소유함으로써 자신을 보호하려 할 것이다. 이런 현상은 핵무기 경쟁에서 볼 수 있다. 더 많은 핵무기, 더 강한 핵무기, 그리고 다른 나라들에 비해 비교우위를 가질 수 있는 핵무기는 결국 지구촌을 점점 더 위험한 곳으로 만들고 있다.

기본적으로 신변안전 문제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분야다. 로마서 13:4은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네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함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개역개정).

개인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마태복음 26:52, 개역개정). 엄밀히 보자면, 이 말씀은 개인의 안전에 대한 이슈가 아니라 복수에 대한 교훈이지만, 무기 사용에 대한 기본적인 기준으로 볼 수도 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안전을 총기를 소지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 아래 뒤야 한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나 역시 강도의 갑작스런 침입에 대비해서 침대 옆에 야구 방망이를 하나 두고 있다. 물론 실제 그런 일이 생길 때, 그것을 쓸지 말지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있지만 말이다.

스위스 | 콜로니 북음 교회 목사

Jean-René Moret:

스위스는 총기 소지를 허용한다. 우리에게 아직 징병제가 있고, 대부분의 스위스 남자들은 실제 총을 보관과 사격 연습을 위해 집으로 가지고 간다. 실제 총기 소지가 허용된다는 말이다. 복역한 남자들은 군용 총기를 사서 보관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 그러나 총기 소지자는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본보기는 그리스도인들이 폭력에 또 다른 폭력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차라리 재산, 명예와 생명을 잃는 고통을 겪음으로 답해야 함을 보여준다(마태복음 5:38-42; 베드로전서 2:20-23). 로마서 13:4에서 바울은 악을 역제하기 위해 무기를 소지하는 국가의 역할을 인정한다. 이것은 개인의 역할이 아니라는 것이다.

연약한 이웃들을 방어하기 위해 총기를 소유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는 있을 수 있다. 국가가 그 기능을 상실하거나 무법천지의 상황이라면 그럴 수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도,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신뢰를 어디에 둘 것인지 반드시 물어보아야 한다.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가 아니면 그들 자신의 무기, 힘, 능력을 믿을 것인가? (이사야 30:15-17)

총기 폭력은 총기 소유의 결과일 뿐만 아니라 총기가 안전과 그 해결책을 제공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문화의 결과이기도 하다. 스위스 사람들은 많은 총기를 소유하고 있지만, 사냥, 스포츠 사격, 그리고 거의 벌어지지 않을 것 같은 전쟁 외에는 그 총기들을 사용할 것을 기대하고 있지 않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총기는 하나님께만 뒤야 하는 신뢰를 갖아가는 이상일 수 있다.

캐나다 | 오타와의 작가, 편집자언론인인 Karen Stiller:

캐나다는 엄격한 총기 규제법을 가지고 있지만, 총기를 소유할 수 있다. 대신 철저한 신원조사를 요구받는다. 캐나다에서는 2020년에 1,500종 이상의 군대용 총기는 금지되었다. 총기 소유를 더욱 엄격히 제한하기 위해 최근 더 강력한 법안이 발의되었다.

물론 총기는 모든 세계에 자리를 잡고 있지만, 미국에서처럼 캐나다에서의 일상과 문화의 일부가 아닐 뿐 아니라, 세계의 다른 많은 곳에서도 그런 것 같지는 않다. 우리 국가들은 너무나 다른 역사를 가지고 있고, 우리 모두는 수정헌법 2조(민간 보호를 위해 시민의 총포 휴대권을 보장하는 법)와 그 법이 적용되는 시행세칙을 가지고 있지 않다.

총기가 우리의 일상에서 수행하는 다양한 역할은 캐나다의 각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나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철저한 도시 사람이다), 캐나다에서 총기 규제를 덜 하도록 로비하는 사람들이 미국 문화에서 총기 소유자들이 가지고 있는 열정에 근접할 것이라고는 여전히 믿지 않고 있다.

(6면으로 계속)

시론



최해근 목사 (몽고메리교회)

테네시주 경찰폭력을 보며

지난 1월 7일 토요일 저녁 테네시주 멤피스 시에서 교통단속하던 경찰들이 타이어 니콜스라는 흑인 청년을 무력으로 진압하고 구타한 결과 심장마비와 신부전증으로 병원에서 사흘 뒤인 10일(화) 4살 된 아들을 남겨두고 사망했습니다. 니콜스가 경찰의 무력에 의해 제재를 당하면서 외친 말은 ‘엄마’였습니다. 실제 니콜스의 어머니 집은 사건이 일어난 장소에서 불과 80야드(73m) 떨어진 거리에 있었으며, 어머니인 로우본 웰스는 아들이 간절하게 어머니를 부르며 고통스러워하던 그 시간에 현장으로 뛰어와 도움을 주지 못한 것에 대해 무척이나 아파했습니다.

인종을 넘어 모든 인간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엄마’를 부르곤 합니다. 니콜스를 폭행하여 숨지게 한 5명의 흑인 경찰관들은 사건 이후 모두 해임됐고 2급 살인, 폭행, 납치, 공권 남용, 억압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니콜스가 난폭 운전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그 주장을 뒷받침해 주는 바디캠 영상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사건은 몇 년 전 코로나가 최고의 기승을 부릴 때 일어났던 또 다른 경찰의 폭력을 기억나게 만들었습니다.

미국은 지난 2020년 5월 미네소타 주에서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조지 플로이드가 경찰관 무릎에 목이 눌리 채 비참하게 사망한 후 전국적으로 빠르게 ‘Black Lives Matter’, 흔히 말하는 BLM 시위를 촉발시켰으며 그 결과 국가적으로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러야 했습니다.

이번에 아들을 잃은 어머니 웰스는 비록 아들이 잔인하게 죽임을 당했지만, 사람들이 도시를 불태우고 거리를 파괴하는 것은 원치 않으며 자신의 아들 니콜스도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원치 않았을 거라며 니콜스와 자신을 생각해 준다면 평화적으로 시위하기 바란다고 부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말에 뉴욕과 LA 등 대도시에서는 경찰폭력에 항의하는 시위가 일어났고 시위 도중 또 다른 폭력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왜 이렇게 경찰들이 쉽게 폭력적으로 바뀔까요? 거칠고 힘든 폭력의 현장에서 매일 일을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폭력자의 모습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자신들이 사용하는 폭력의 폭력성에 대해서는 무감각해지고 지극히 정당화되는 자기모순에 쉽게 빠지곤 합니다. 그래서 경찰관들에게 무엇보다도 더 필요한 것은 부드러움과 따뜻함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총기로 무장하고 훈련받더라도 그 마음 깊은 곳에 긍휼함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그 모든 무기와 훈련은 오히려 사람을 더 잔혹하고 보복적인 인간으로 변형시켜 가는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총기폭력자료(GVA)에 의하면 2013년 1월 한 달 동안 총기사고로 생명을 잃은 사람들의 숫자는 1,546명에 이릅니다. 계속 확장추세에 있는 이런 폭력에 대처하기 위해 더 강한 무기와 훈련은 우리 주변 삶의 현장에서 또 다른 문제를 만들어 낼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처럼 부패한 사람과 사회를 대할 때, 그 모든 외형적인 문제의 뒤안길에 숨어있는 내면 영혼의 무너짐을 읽어내고, 그 무너짐을 사랑과 용서 그리고 새로운 소망으로 채우고 바뀌 가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아름다운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2023년, 이 한에도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샬롬.

hankschoi@gmail.com

글로벌 인재 발굴과 양성을 실현하는

최고의 동문을 자랑하는 Midwest University School of Theology

본교의 신학대학(원)은 37년 전통의 북음주의적인 초교파 교육기관으로 각 교단을 대표하는 목회자, 선교사, 교수, 기업인, 의사 등 동문들이 현재 전세계 70여개국에서 활발하게 사역하고 있음.

목회자, 선교사, 기독교 지도자를 위한 리더십 전공 Ph.D. 학위

Midwest University

Founded in 1986 www.midwest.edu

학점, 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

1. 미국 유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F-1 Visa (SEVIS I-20) 또는 J-1 Visa (DS-2019)
2. 직장과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세계 어디서든지 Online 혹은 집중강의로 학점취득 가능
3. 영어, 한국어 언어에 구애없이 학점취득 가능
4. 타대학에서 받은 학점 최대한 인정하여 편입가능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국제항공대학(원)	경영대학(원)	국방대학원
교육대학(원)	리더십대학원	상담심리대학원
신학대학(원)	음악,문화예술대학원	

자세한 사항은 web site 를 방문하거나 이메일 혹은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학문의 : 전화 (636)327 - 4645, 이메일 usa@midwest.edu

Midwest University

Main Campus: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www.midwest.edu

Tel : (636)327 - 4645 / E-mail : usa@midwest.edu

목양실에서...

노창수 목사
(남가주사랑교회)



행복과 축복

지난 한 해 동안 행복하셨습니까? 새해에도 행복을 누리시고 싶습니까? 과연 무엇이 행복일까요? 모든 사람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행복의 조건이 다 같은 것은 아니지만, 대

부분 사람은 장수하고, 재산이 많고, 건강해서 마음이 편하고, 덕을 낙으로 삼고, 제명에 죽는 것, 즉 오복을 갖추면 행복할 것이라고 합니다. 한동안 한국에서 이애란 가

수의 '100세 인생'이란 노래가 대인기였습니다. "6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 젊어 못 간다고 전해라. 7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할 일이 아직 남아 못 간다고 전해라. 8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은 쓸 만해서 못 간다고 전해라. 9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알아서 갈테니 재촉 말라고 전해라. 100세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좋은 날 좋은 시에 간다고 전해라." '못 간다고 전해라'라는 가사가 반복되는 이 노래의 밑바탕에는 아무리 큰 부귀영화를 누리시고, 건강하고, 장수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하며, 심

지어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죽음을 거부한다고 해도, 인간의 수명은 100세 안팎이라는 안타까운 현실이 담겨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망률 100%입니다. 유한한 우리가 유한한 세상에서 느끼는 행복은 일시적인 감정에 불과합니다. '행복'(Happy, Happiness)의 어원은 '우연히'(happening)입니다. 즉 '행복'이란 '우연히 일어난 일'입니다. 아무리 좋은 외적 조건이나 많은 소유도 영원한 행복, 궁극적인 행복을 가져다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일시적인 행복과는 다릅니다. 축복(blessing)은 어원

이 '피 흘리다'(bleeding)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에 근거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가 회복됩니다. 구원받아 영생을 얻습니다.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평강이 삶 속에 넘치는 축복을 누리니다. 새해에 행복을 누리시기 원하십니까? 참된 행복은 외적인 조건이나 소유가 아닙니다. 잠시 느끼는 감정도 아닙니다. 참된 행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받는 축복입니다. 참된 행복은 예수님의 피 흘림(축복)을 통해서만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

가에서 보혈을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죄로 인해 끊어졌던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 회복을 통해 가족과의 관계 회복,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 회복, 세상과의 관계 회복을 경험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 회복을 통해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이 자녀에게 베푸시는 축복입니다. 새해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참된 행복입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랴오.'

푸/른/초/장

김영창 목사
(안나산 기도원 원장)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두 사람은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믿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낙심된 마음으로 엠마오라는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길에서 찾아오신 주님을 다시 만난 그들은 발걸음을 되돌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그들이 만난 예수님을 증거 했습니다.

꿈을 기억하며, 비록 내 생각이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믿음의 삶을 포기하거나 주님을 떠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뜻 아래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과 생각을 내려놓고

다. 우리는 주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고 믿어야 합니다. 오늘날도 잘못 알고 신앙생활을 하면 낙심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만사형통케 될 것으로 생각하고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로 돌아가자고 원망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만나 외에 아무것도 없다"(민 11:5-6)고 불평과 원망을 하여 하나님을 진노케 하였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과거로 다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과거가 비록 화려하고 좋아 보여도 결국 죄와 마귀에게 얽매어 살던 어둠의 시간이고, 구원의 소망이 없었던, 엄중한 심판이 예고된 삶이었습니다. 다시 그 과거로 돌아가면 소망이 없고, 결국 심판과 멸망만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혹 여러분 중에 엠마오로 가려는 사람이 있습니까? 엠

마오 길은 믿음의 식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세상으로의 전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빨리 이 엠마오 길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에서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라고 경고하였습니다.

주님을 우리 마음에 모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위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덧입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4.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그들이 믿음을 잃어버렸을 때 그 눈이 가리어졌습니다(16절). 그러므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대화를 나누어도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영의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들의 눈이 밝아지자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31절). 신앙의 삶을 사는 우리는 무엇보다 영의 눈, 믿음의 눈을 밝게 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엠마오 길의 두 제자 누가복음 24:13-35



1. 엠마오로 가던 그들은 누구입니까?

이른 새벽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이 돌아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말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과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한다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겠다는 열정과 희망이 있었지만, 그렇게 믿고 의지하였던 예수님이 잡혀가 불과 하루 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본 제자들은 낙심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할 때는 두려운 것이 없었지만, 예수님이 없는 지금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제자 중 두 명은 엠마오를 향하여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2. 두 사람은 왜 엠마오로 갔습니까?

두 사람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두 사람은 엠마오로 가기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많은 이들이 생각한 것처럼 글로바와 다른 제자도 아마 예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키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등극할 줄로 믿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이 허망하게 죽음을 맞이하자 그 소망이 하루 아침에 무너졌습니다. 그들은 엠마오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따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죄와 사망 중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바로 알고 믿어야 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로서,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함을 알고 있을 때, 믿음 생활 중에 시험과 환난이 닥쳐와도 결코 넘어지거나 주를 떠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에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오 길은 믿음의 식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세상으로의 전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빨리 이 엠마오 길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에서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라고 경고하였습니다.

3.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까?

낙심과 절망과 근심된 모습으로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와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주님과 대화를 하면서도 그가 예수님이신 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날이 저물어 함께 들어가 음식을 먹으려 할 때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주시는 것을 통하여 눈이 밝아져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육의 눈이 있는 것처럼 영적인 눈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제야 부활을 주님을

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 여러 부분을 통해 주님을 만난 이들이 큰 은혜를 누렸던 예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목말라 하던 여인이 그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는 영적 갈증은 해소되고, 삶의 무게를 벗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기쁨이 충만하여 그가 외면했던 동네로 뛰어들어가 사람들에게 자기가 만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자가(요 4:29) 되었습니다. 참으로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에게는 세상 사람이 알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난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그것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고전 9:16).

여러분! 낙심하여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를 주님이 찾아오신 것처럼, 주님은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 주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손길을 뿌리치거나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교만과 거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을 모셔 들여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확신한 두 사람은 마음이 뜨거워져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오던 길을 돌이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자기들에게 나타낸 예수님을 제자들과 모인 무리에게 증거 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영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같이 변화를 받아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예수님을 만남으로 마음이 뜨거워져야 합니다. 그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지 못하고 낙심하여 힘없이 엠마오를 향하여 걸어가는 두 사람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엠마오 마을로 가던 두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신 주님, 그 주님을 만남으로 눈이 밝아지고 마음이 뜨거워졌을 때, 낙심된 마음은 소망으로 바뀌었고 절망은 기쁨의 마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다시금 주의 제자로서 위치를 회복하고 사명자로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 마음에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변화된 모습으로 능력 가운데 여러분이 만난 그리스도를 증거 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faum77@gmail.com

아는 게 힘이다! 가치관 전쟁



새라김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나의 자녀의 미래는...



윗 사진은 그레이스 교회 예배당을 춤추며 홍보하는 드래그 퀸 Brita Filter가 온라인에 게시한 비디오에서 아기 인형 드레스를 입고 춤추는 자신의 모습을 올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무시위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에게 나의 자녀의 미래를 맡길 수 있을까요?

더 이상 공립학교와 차터 스쿨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이제는 Private School 들도 절대 안전 하지 않습니다!

뉴욕에 있는 Grace Church Manhattan private school(그레이스 교회 사립학교)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1년에 무려 5만 7천불의 학비를 내는 그레이스 맨하탄 사립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드래그 퀸 공연에 참석하여 프라이드(무지개) 깃발을 흔들고 춤을 추도록 강요당한 일이 벌어진 것이 나중에 알려지며 크리스천 학부모들은 경악하고 있습니다.

한 학생은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프라이드 깃발에 무지개 모양 스티커를 나눠주는 드래그퀸(Drag queen)이 "하나씩 가져가라 만약 너가 가져가는 것을 거부한다면 너는 '동성애 혐오자'다"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한 학생은 자신에게 '뉴욕의 여왕'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드래그 퀸의 모습에 놀라서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 학교 예배당에서 벌어지는 거냐고, 선생님에게 물어보았다"라고 합니다.

Brita Filter는 본인이 Pansexual이라고 밝혔는데 아직도 이 단어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단어입니다. 팬섹슈얼리티(Pansexuality)란 단어는 지난 몇 년 사이에 유행하기 시작한 단어로, 성별이나 성별 정체성에 관계없이 아무에게나 성적으로 또는 감정적, 감성적으로 끌리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번 교회 사립학교 행사에 참석한 Havea는 드래그 퀸에게도 참가했으며 드래그 아웃 더 투표의 국가 공동의장입니다. 마약과 코카인으로 무장하고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채널에서는 왜곡되고 적나라한 성행위까지도 보여주었습니다.

4월에는 교회에서 연설하며 전국의 학교와 식당에서 드래그 쇼를 하는 아이들의 동영상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어린아이들을 성적으로 혼돈시키고 망가뜨리는 아동학대입니다.

6월에는 달라스의 게이 바에 아이들을 초대하는 행사를 열어 많은 이슈가 되었고 아이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가 책을 읽어주었습니다. 어떤 책일지는 모두 상상이 가실 겁니다.

충격적인 것은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뉴욕시의 공무원들은 2018년 이후 드래그 퀸이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행사에

\$200,000 (20만 달러) 이상을 썼습니다.

그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차마 두 눈 뜨고 볼 수 없는 이 행사를 해당 학교 목사와 교수들 그리고 학교안에 LGBTQ 클럽인 Spectrum의 고문들에 의해 후원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기독교 사립학교에서 가르치는 Curriculum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동성애는 신성모독 죄이고 어떤 형태로든 모양으로 그 죄를 짓고 있다면 수용하고 용납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서 벗어나게 성심껏 도와주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도와주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은 진리를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교회가 운영하는 이 사립학교는, 춤을 추고 예배당을 홍보하는 드래그 퀸에게 박수를 치라고 강요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레이스 맨하탄 사립학교는 과거에 비판적 인종 이론 정책으로 비난을 받은 경력이 있습니다.

학교 관계자들은 성공회 학과의 전통은 모든 인간의 고유하고 본질적인 가치를 인정하지만, 인종이나 종교뿐 아니라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에 대한 이해와 존중하는 마음 또한 심어준다고 비성경적인 내용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마치 사실인 것처럼 전했습니다.

수학 교사인 Paul Rossi는 12장의 긴 안내서를 통해 교직원, 학생, 학부모들에게 '엄마'와 '아빠'라는 명칭 사용을 중단하고 심지어 Merry Christmas와 Happy Holiday라는 말도 하지 말라고 권고했습니다.

University of Southern Maine 학교에서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Christy Hammer라는 교수가 수업시간에 "There are only TWO genders-성별은 남자와 여자 단 머리뿐이다"라고 말했는데 이 발언 때문에 학생들이 들고 일어나 이 교수의 수업을 듣기

를 거부했고 결국 교수는 학교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뉴욕이나 메인 등 캘리포니아와 같이 반기독교적인 정치정책들이 강력한 주들은, 이미 10년 넘게 공립학교 수업, 교과서, 교육시스템을 통해 아이들이 반기독교 사상으로 세뇌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학생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과학까지도 자신들이 세뇌된 아이디어인지와 다르면 즉각 거부하도록 훈련된 것이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그러나 기본 소식도 있습니다.

아이들을 세뇌시키는 CRT, WOKE, 잘못된 공립학교의 성교육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라!

그래도 감사한 것은 Ron DeSantis 플로리다 주지사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런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세뇌시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외치며 플로리다주에서 만큼은 아이들을 성적으로 비하하려는 것은 법과 정책에 절대 부합하지 않기에 반대하고 탄압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의, 중부의 여러 주들이 비슷한 정책을 펼치고 있기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전하고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것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학부모들로부터 올바른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되는 것은 말로 할 수 없이 중요합니다. 학부모가 곧 자녀들의 교사요 멘토니까요.

이제 곧 저희 단체 Tvnext에서는 학부모 교사 세우기 "성경적 세계관 학교"를 다시 엽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아는 만큼, 우리 자녀들, 다음세대를 주님의 군사들로, 성경적 세계관으로 튼튼히 무장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셀비치사랑교회 / (310) 749-0577
TLSpC0316@gmail.com

Q: 목사님, 제 아들이 신년 새해에는 늘 아버지 집에 찾아와 세배도 하고 했는데 최근 몇 년 동안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세배는 이상승 배이기에 안 온다고 하는데 세배가 이상승배라는데 이해가 안 됩니다. 목사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LA에서 모 성도가 (전화)

A: 좋은 질문입니다. 이상승배는 사람이 아닌 비인격체나 어떤 죽은 사람의 동상이나 형체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는 것입니다. 출 20:4-5절을 보면 십계명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 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리고 살아 있는 사람의 동상에도 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과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자기를 신격화하여 자기를 닮은 큰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게 했습니다. 그러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생명을 걸고 거부함으로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과거 로마시대에도 기독교인들은 황제의 동상앞에 절하고 분향하도록 요청을 받았을 때 이를 거부함으

세배, 웃어른에 대한 예의와 존경의 표시 성경적으로, 주님만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

로 많은 순교자가 발생했습니다. 장차 불법의 사람인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에 자기를 신격화하여 김일성처럼, 느부갓네살처럼 로마 황제처럼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를 숭배하도록 요청할 것입니다.(살후 2:3절 이하, 계 13장) 이는 이상승배이므로 생명을 걸고 거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죽은 부모의 무덤에 찾아가서 절하거나 제사하는 것은 이상승배입니다.

그러나 새해를 맞아서 부모나 웃어른을 찾아서 세배하는 것은 이상승배라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웃어른에 대한 예의와 존경의 표시라 할 수 있습니다. 세배는 큰 절입니다. 대개 큰 절은 성경을 보면 아주 지체 높은 왕을 알현할 때나 지체 높은 어른에게 아랫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존경과 공경의 뜻입니다. 과거에 요셉의 형들이 양식을 하여 애굽에 갔을 때 총리인 요셉 앞에서 큰 절을 하며 존경과 예의를 표하였습니다. 성탄구시에 아기 예수를 찾아온 동방의 박사들도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의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가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리니라."(마2:10)고 말합니다.

나를 낳은 부모는 자녀에게 왕이나 어떤 존재보다 존경을 받을 분입니다. 그러므로 세배를 지나치게 이상승배로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지나치게 큰 절을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입니다. 로마 백부장 고넬료 가 가까운 친구를 모아놓고 베드로를 강사로 청하여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자 베드로가 일으키며 가로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행 10:26) 큰 절을 거부했습니다. 결혼 시에 신부가 폐백을 할 때 시부모와 친척들에게 신랑 신부를 큰 절을 시키며 술을 따르고 아들, 딸 잘 나오라고 대추를 던집니다. 특히 신부는 매우 힘들어하는 것을 봅니다. 그것을 기독교인들도 무조건 따라 하는데 솔직히 이것은 기독교 양식에는 맞지 않습니다. 이것은 비기독교적인 문화양식입니다. 결혼예식에서 하는 폐백도 보다 기독교인 문화에 맞게 새롭게 설정해야 할 것입니다.

FAMILI STUDY Food And Microbiome Longitudinal Investigation

NYU 의과대학 웨일리 연구 참여자 모집 안내

- 미국 국립보건원(NIH)과 NYU 의대 웨일리 연구팀 (총책임자: 안지영 교수)은 세계 최초로, 여러 민족의 식습관, 환경, 박테리아와 만성 질병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 특히 미국에 거주하시는 한국인의 질병발생 및 위험요인을 연구하여, 질병예방 및 보건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 의료보험이나 신분제에 관계없이, 40세 이상인 미국내 거주자는 한번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을 보내 주시면,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우송해 드립니다.
- 집에서 완료하신 후, NYU의대로 무료 우송해 주시면, 25불 기프트카드를 보내 드립니다.

NYU 의과대학 웨일리 연구 연락처

FAMILI Study (Hee Choi, MS, RD) NYU School of Medicine 180 Madison Avenue # 3-23 New York, NY 10016

전화: 646-501-3673 | 646-501-3674
문자: 929-410-4475
이메일: hee.choi@nyulangone.org
웹사이트: http://www.nyufamili.org/kor/index.php

한분 한분의 참여는 우리의 2세에게 보다 건강한 사회를 남겨 줍니다.
여러 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독신청서

미주크리스천신문의 정기구독을 신청하며 1년 구독료를 동봉합니다.

★ 1년 구독료	미국..... \$100	유럽..... \$240
	캐나다..... \$130	남미..... \$240
	한국 및 동남아시아..... \$240	아프리카..... \$240

신청 유형	<input type="checkbox"/> 본인구독 <input type="checkbox"/>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냄	
구독자 이름 (혹은 후원자이름)	한글: _____	목사 <input type="checkbox"/> 영어: _____
영어: _____	평신도 <input type="checkbox"/>	
배달 주소	_____	
전화/Fax	() ()	
★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내는 경우에는 받는 등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받는분 이름	한글	영어
전화번호/Fax	() ()	() ()
배달 주소	_____	
교회/기관명	_____	

▶ E-mail로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E-mail: nychpress@gmail.com

신청일자: 20__년__월__일 신청인 서명: _____
★ 저희 미주크리스천신문을 구독(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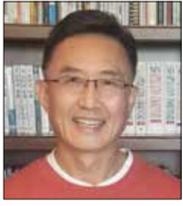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L.A: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213)674-7982, (323)665-0009
E-mail: lachpress@gmail.com

■ N.Y: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E-mail: nychpress@gmail.com

목회와 선교



여승운 목사 (남가주보배로교회)

그리스도께 대한 목마름

자동차 타이어에 못이 박혀서 바람이 빠지기 시작하면 속도가 점점 떨어지면서 결국은 길가에 자동차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매일의 순례의 여정을 걸어가는 마음의 속도가 점점 느려지고 어디를

향해 나아가야 할지 방향마저 희미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영혼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집중력을 놓치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집중력을 놓치면 많은 시간을 주변 환경을 바라보면서 세상 염려와 근심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에너지를 송두리째 낭비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집중력을 놓치면 하나님만 빼고 다른 것들에 생각의 관심이 끌려다니면서 마치 길 잃은 한 마리 양처럼 두리번두리번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매일의 순례의 여정을 탄력 있게 걸어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집중력을 높이는 일에 사활을 걸어야 합니다.

세상에는 욕이 즐거워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욕의 즐거움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돌아서면 욕의 즐거움은 금세 빠져나가고 공허함이 그 자리를 고스란히 메꾸게 됩니다.

몸은 서 있는 것 같지만 마음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휘청거리는 모습이 우리 자신에게서 발견되는 것은 아닙니까?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스도로 영혼을 부요케 하십시오. 그러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라는 고백에 찬 흠얼거림의 찬양이 흘러나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누구나 하룻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이 즐거워하며 하룻길을 걷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종류의 사역을 하든지 그 출발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혼이 즐거워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런 일도 행하고 저런 일도 행하고, 이런 사역도 감당하고 저런 사역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룻길의 순례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 진정으로 ... 진정으로 ... 구해야 할 것은 전문 지식 이전에, 특별한 경험 이전에, 가시적인 실적 이전에, 성령으로 말미암은 그리스도 그분 자체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구할 때 우리의 영혼이 여호와 하나님과 친밀한 사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

스도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친밀한 사귄을 가질 때 우리의 영혼이 한없이 부요해집니다. 우리의 영혼이 부요함을 누릴 때 오늘 하루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혹은 무슨 일을 하든지 샘플 샷,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즐거움이 따를 것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빌립보서 3:8-9).

오늘도 이렇게 외치고 선포하며 나갑시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 나의 삶의 주인!!
newsong6364@gmail.com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우크라이나 지원 놓고 바이든 NO, 마크롱 YES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투기 지원과 관련해 이견을 보이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서방으로부터 주력 전차를 지원받자 마자 "미국 F-16 전투기 등이 필요하다"며 요구 수준을 높였고, 일부 서방 국가는 이에 호응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확전을 우려해 F-16 지원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30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는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 F-16 전투기를 지원하는 방안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날 메릴랜드주 볼티모어를 방문한 후 기자들과 만나 '우크라이나에 F-16 전투기를 지원하는 것에 찬성하냐'는 질문에 "아니(No)"라고 잘라 말했다.

그러나 최근 프랑스 등 서방 일부 국가에서는 기류가 달라지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마르퀴터 네덜란드 총리와 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에 전투기를 보내는 것을 고려하느냐'는 질문에 "조건만 맞다면 아무것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마르퀴터 네덜란드 총리도 이날 마크롱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금기는 없지만 (전투기 지원이 결정되면) 큰 진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크리스토프 호이스겐 뮌헨안보회의(MSC) 의장도 "러시아의 침공으로부터 방어를 더 잘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전투기를 공급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솔츠 총리의 태도와는 대조적인 주장이다.

주력 전차 확보에 성공한 우크라이나는 서방에 더 강한 무기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블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날 "우리는 장거리 미사일이 필요하다"며 사거리 297km의 미국산 장거리 미사일 에이태컴스(ATACMS)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유리 이흐나트 우크라이나 공군 대변인도 전투기 지원에 대해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극우 정권 한달 만에 이스라엘 다시 '중동의 화약고' 되나

'중동의 화약고'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갈등이 또다시 격화하고 있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극우' 정권이 출범한 지 한 달이 지나지 않아 무력 충돌로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

다. 이스라엘은 핵무기 개발을 지속 중인 이란에 대한 공격까지 감행했다.



팔레스타인 문제는 이슬람권 전체를 격앙시키는 이슈로, 네타냐후 정권이 현재의 요르단강 서안·가자지구 병합 정책을 고수할 경우 겨우 안정됐던 중동 정세는 단숨에 뒤집히게 된다. 시작은 지난 26일 네타냐후 정권이 이스라엘군을 요르단강 서안의 팔레스타인 난민촌으로 보내 무장세력 색출 작전을 피면서 시작됐다. 무장세력인 하마스와의 이슬라미지하드 대원을 검거한다는 명목으로 진행된 이 작전에서 팔레스타인인 10명이 사살됐다. 그러자 곧바로 이를 뒤 팔레스타인인이 다수인 동예루살렘의 한 유대교 회당에서 팔레스타인 청년이 총기를 난사해 유대인 7명이 사망했다. 2008년 이래 가장 많은 희생자가 나온 이 사건 직후 같은 지역에서 13살에 불과한 팔레스타인 소년도 또 총기를 발사해 유대인 2명이 중상을 입었다.

수년 전 미국 등의 중재로 겨우 잠잠해졌던 이스라엘 대 팔레스타인 간 '피의 보복' 공포가 또다시 이스라엘 전역을 휘감게 된 셈이다. 뉴욕타임스(NYT)는 "네타냐후 정권이 여러 외교 사안에서 한 치도 양보하지 않겠다는 강경 일변도 정책을 버리고 있다"며 "당분간 걷잡을 수 없는 보복의 악순환에 빠져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찰 집단폭행으로 20대 흑인 사망 영상 공개에 들끓는 미

미국 테네시주 멤피스에서 교통 단속 중이던 경찰관들이 흑인 운전사 타이어 니컬스(29)를 집단 구타해 숨지게 한 사건으로 미국이 들끓고 있다. 당시 현장 상황



이 고스란히 담긴 경찰 보디캠 영상이 공개되면서 미 전역에서 경찰의 폭력성과 무자비함에 항의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28일 뉴욕타임스(NYT)와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니컬스의 사망으로 경찰력의 과잉 집행에 항의하는 시위가 주요 도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졌다. 뉴욕 워싱턴 시카고 보스턴 등 대도시뿐 아니라 볼티모어 피츠버그 솔트레이크시티 등에서도 시위가 열렸다. 시민들은 경찰

규탄 메시지를 적은 손팻말을 들고 "경찰 테러를 끝내자" "흑인에 대한 차별을 멈춰라"고 외쳤다. 경찰의 니컬스 집단폭행 사태는 지난 7일 발생했지만 광범위한 분노가 촉발된 건 지난 27일 보디캠 영상이 공개되면서다. 영상에서 경찰관들은 난폭 운전 의심을 이유로 니컬스의 차를 세우고 그를 끌어나 무차별 폭행을 가했다. 니컬스는 "집에 가는 중이었다"고 항변했지만 경찰관은 통증을 눈물을 유발하는 '페퍼 스프레이'를 꺼내 얼굴에 뿌렸다.

니컬스를 폭행한 경찰관 5명은 모두 흑인이었다. 희소병인 크론병을 앓던 니컬스는 체포 뒤 호흡곤란을 호소해 병원에 이송됐고 10일 신부전과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니컬스를 폭행한 경찰관 5명은 모두 면직 처리됐고 2급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니컬스의 변호사는 이 사건을 1991년 발생한 로드니 킹 사건에 비유했다. 당시 음주 운전을 했던 로드니 킹은 백인 경찰관 4명에게 폭행을 당했다. 경찰관들이 정당방위로 무죄를 선고받자 흥분한 흑인들이 방화와 약탈을 저지르며 대규모 폭동 사태로 이어졌다. 미국 지방정부와 연방정부는 이런 과거 사례를 의식해 사건 파장에 주목하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NYT는 "기소된 다섯 명의 경찰관이 흑인이라는 사실이 사건을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며 "백인 경찰관의 흑인 목숨 경시 등 인종 차별은 여전히 존재하고, 경찰관들의 습관적인 공권력 과잉 집행 문제도 섞여 있다"고 분석했다.

존슨 전 영국 총리 "푸틴, 영국에도 미사일 쓸 수 있다 협박"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해 영국에 대해서도 미사일 공격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언급하며 보리스 존슨 전 영국 총리를 위협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BBC는 30일 된 다큐멘터리의 내용에서 존슨 전 총리는 이 다큐멘터리에 출연해 "지난해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전 푸틴 대통령과 나는 장시간 통화를 했었다"면서 "그는 나와 통화 중 1분 내로 영국에 미사일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존슨 전 총리는 당시 푸틴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 서방이 제재를 가할 것이며 러시아 국경에 더 많은 나토군이 배치될 것"이라고 경고하는 한편 가까운 미래에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해 러시아의 침공을 만류하려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푸틴 대통령은 "보리스, 난 당신을 해치고 싶지 않지만 (영국을 향한) 미사일 공격은 1분밖에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위

협했다는 것이다. BBC는 '영국에 대한 러시아의 지난 공격'을 감안했을 때 존슨 전 총리가 푸틴 대통령의 위협을 심각하게 받아들였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2018년 3월 러시아 연방보안국 요원들은 영국 솔즈베리에서 거주 중이던 전직 러시아 이중 간첩과 그의 딸을 암살하려 시도한 바 있다. 영국 국내에서 러시아 측의 위협이 현실화했던 전례가 있는 만큼 존슨 전 총리로서는 푸틴 대통령의 발언에 민감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 해석이다.

日 '고래고기 자판기' 논란 '야만적' VS '식문화 존중'

환경단체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한 포경업체가 고래고기를 판매하는 자판기를 도심에 설치해 논란이 불거졌다. 일본 도쿄에 있는 회사 '교도선바쿠(共同船鮪)'는 지난달 냉동 고래고기를 비롯해 킨조림, 조리된 고기 등을 판매하는 자판기를 도쿄와 다른 지역에 총 4대 설치하고 본격 판매에 나섰다



3P통신이 전했다. 다음 달까지 자판기 10대를 더 설치하고, 판매가 잘되면 향후 5년간 100대로 늘린다는 목표다. 이를 두고 온라인상에서는 "멸종위기종을 길거리에서 쉽게 살 수 있는 조치는 야만적"이라는 목소리와 "각국의 서로 다른 식문화는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충돌했다. '고래·돌고래 보호'의 아스트리드 폭스는 "이런 이기적인 판매 술책은 일본 수산청이 약 2년 안에 고래잡이 어획량을 늘리고 포경 대상 고래 종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삼은 시점에 나왔다"고 지적했다. 환경보호론자들은 고래고기가 더는 일본에서,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 일상적인 식단이 아니라는 점도 짚었다. 수요가 없는 포획은 무의미하다는 지적이다. 일본 수산청 자료를 보면 고래고기는 최근 몇 년간 일본 전체 육류 소비량의 0.1% 미만을 차지했다.

자판기 회사 관계자는 '고래고기 자판기' 매출이 예상보다 상당히 높아 직원들이 제품을 보충하느라 분주하다고 말했다. 요코하마의 한 고래고기 식당을 방문한 60대 가시와바라 마미도 AP와의 인터뷰에서 "고래고기는 어렸을 적 향수를 자극하는 추억의 맛"이라며 "고래를 무의미하게 죽이는 것은 옳지 않지만, 고래고기는 일본 음식 문화의 일부"라고 말했다.

한편 국제적인 비난 여론 속에 지난해 2월 주요 어업국인 아이슬란드도 2024년 이후 상업적 고래잡이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그러나 일본 여당 의원들은 여전히 '전통문화'로서 상업적인 고래잡이와 고래고기의 소비를 강력히 지지하고 있다.

크리스천은 자기 방어를 위해..

(3면에서 계속)

십지어 그리스도인들이 개인의 안전을 위해 총기를 소유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도 매우 미국적이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나의 견해는 매우 캐나다적이라 느낀다.)

우리 기독교 가정은 개인의 안전을 위해 특별히 총기를 소유해야 한다는 것은 나에게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하고, (우리가 성도로서 따라야 한다고 믿는) 이 땅의 법을 따른다면, 그 총기는 장전되지 않고, 안전장치로 잠겨져 있어야 하며, 탄약과 별도로 보관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이런 관점은 개인의

신학적 위치와 상관없이 개인의 보호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합의점이라 할 수 있다.

호주 | 시드니 City Bible Forum의 전도사 Sam Chan:

호주에서는 총기를 소유할 수 있지만,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총기는 등록해야 한다. 그러나 자동 소총이나 반자동 소총은 구입할 수 없다.

호주인은 자동차나 주택을 소유할 필요성을 느끼곤 하지만, 개인의 안전을 위한 총기를 소유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그것은 호주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총기가 없다는 것이 호주에서는 총기로 인한 효율성보다 더 안전감을 느끼게 한다.

호주에서는 공동 안전이 최우선이며, 우리는 정부가 그 안전이 가능하게 만들 것을 기대한다. 자동차 안전 벨트 의무화, 자전거 헬멧 착용 의무화 그리고 무작위 음주 운전 단속법을 도입한 것은 호주가 처음인 것 같다.

지역사회의 안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우리는 총기 소유권을 제한해왔다. 1996년 이후 대규모 총기 난사 사건은 없었다.

바울 역시 이 부분을 강조하면서 고린도전서 10:23-24에서 이렇게 말했다.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아

무도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추구하십시오. 바울은 우리 모두에게 개인적 권리들이 있지만, 공동체를 위해 가장 좋은 것을 해야 하는 개인적 책임도 있다고 말한다.

온두라스 | 과테말라 케트살테낭고의 중앙 아메리카 성서 오순절 신학대학원장 Miguel Álvarez:

온두라스에서는 총기를 소지할 수 있지만, 총기 소지를 위해서는 국가 안보국이 요구하는 요건을 준수하여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불행하게도, 이러한 좋은 의도의 과정을 밟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패의 징후가 포착되기도 한다. 어쨌든 총기를 소지하

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법 자체는 엄격하다.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무기를 지니고 다녀야 한다고 믿지 않는다. 무기를 소지한다는 것은 복음의 메시지에 반하는 행위이다. 무기 사용을 정당화하는 신학적, 성경적 근거는 없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소명은 평화이며, 호전적이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우리의 논쟁을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해 문명화된 존재로서 각자의 다름에 대해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무기를 소지하는 모든 신자들은 명백하게 그 또는 그녀 안에 있는 영적 능력을 의심하고 있는 것이다.

야고보서 3:17은 "그러나 위에서 오는 지혜는... 평화스럽고,

친절하고, 온순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하고,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새번역)라고 말씀한다. 더 나아가 로마서 12:18에 따르면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평화로 부르셨다. 무기의 존재는 평화에 반한다. 무기 사용에 대한 성경적, 신학적 정당성은 없다.

무기를 소지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평화를 알지 못하며, 하나님의 정의를 이해하지도 못한다. 따라서, 인간의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쟁과 무기 사용에 반대한다고 선언해야 하며, 평화와 정의에 찬성한다고 선언하는 것이 중요하다.

(9면으로 계속)

VI. 인간론 (5)

L. 하나님의 언약 (The covenant of God)

무한하시고, 영원하시며, 불변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유한한 피조물 인간과 어떠한 방법으로 관계를 맺을 수 있는가? 어거스틴은 "유한은 무한을 채울 수 없다" (finitum non possit capare infinitum), 칼빈도 이와 비슷한 말을 했다, "유한은 무한을 담을 수 없다. 이것은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말이다.

그러나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하여 유한한 인간과 관계를 맺고 계신다. 언약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이다. 죄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의 파괴이며, 구원은 관계의 회복이고, 성화는 관계의 성장이며, 영화 (천국)는 관계의 완성이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언약에 대해 잘 설명한다. 7:1, 인간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하여 (Of God's Covenant with Man) "하나님과 피조물의 차이는 매우 현격해서, 이성적인 피조물들이 자기의 창조자인 하나님께 순종할 의무가 있기는 하지만, 그들은 결코 그분에게 축복과 보상으로서 어떤 성과도 거둘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으로서서는 어느 정도 자발적인 비하에 의해서, 기꺼이 그것을 언약의 방식으로 나타내셨다." (The distance between God and the creature is so great, that although reasonable creatures do owe obedience unto Him as their Creator, yet they could never have any fruition of Him as their blessedness and reward, but by some voluntary condescension on God's part, which He has been pleased to express by way of covenant).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의하면 언약을 인간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자발적인 비하" (God's voluntary condescension) 라고 정의했다.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 사이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서로 교통할 수 없다.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먼저 유한한 인간에게 자기를 계시해 주셔야 하고, 먼저 인간에게 찾아와 주셔야 관계가 이루어진다. 신앙고백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찾아오심을 "하나님의 자발적인 비하" (voluntary condescension on God's part)라고 설명한다.

칼빈은 성경 해석의 원리를 설명하면서 "스스로 낮추어 상대방에게 맞춤" (God's accommodation)을 강조한다. 무한하신 (infinite) 하나님께서 유한한 (finite) 인간에게 찾아오실 때 스스로 자신을 낮추시고 인간의 편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하셨다. 칼빈의 "스스로 낮추어 상대방에게 맞춤" (God's accommodation) 사상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언약 사상과 동일하다. 무한하신 (infinite) 하나님께서 유한한 (finite) 인간이 알아들을 수준으로 자신을 낮추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며, 관계를 맺는 방법이 곧 언약 (covenant)이다.

그리고 언약의 하나님은 초월적인 (transcendent)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내재적인 (immanent) 하나님이시다. 만약 초월적 하나님만 강조하면 이신론 (deism)이 될 것이며, 내재적 하나님만 강조하면 범신론 (pantheism)이 된다. 둘 다 성경의 하나님은 아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초월적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교통하시는 내재적인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초월적이시면서 동시에 내재적인 하나님이 될 수 있는가? 언약을 통해서이다. 무한하신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통해 유한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은 "나는 저들의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 하셨다.

언약의 하나님께서 "자발적인 자신의 비하"를 통해 사람의 몸을 입고 임

과 맺으신 첫 언약은 하나의 행위 언약이었는데, 생명은 거기서 사람에게 약속되었고, 그의 안에서 그의 자손에게 약속되었다. 그 조건은 완전하고 개인적인 순종이었다."

인간이 행위 언약에서 실패하자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 은혜 언약을 맺어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신앙고백 7:3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7:3. "인간은 그의 타락으로 저 언약에 의해 주어진 생명에 대하여 스스로 자책을 잃어버렸으나, 주님은 기꺼이 두 번째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것은 일반적으로 은혜 언약이라고 한다. 그분은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생명과 구원을 죄인들에게 아낌없이 베푸신다. 예수 안에 있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그들에게 요구하시고, 영생하도록 작정된 모든 자에게 기꺼이 믿게 하시고 또 믿을 수 있도록 그분의 성령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다."

구약학자 팔머 로버슨 (O. Palmer Robertson)은 언약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피로 맺은 결속"이라고 정의했다. (A covenant is a bond in

2) 언약은 피로 맺은 것이다 (A covenant is a bond in blood).

언약은 삶과 죽음의 문제이다. 피흘림이 없이는 사람이 없다. 피흘림은 언약을 파기한 자에게 주어지는 책임이다. 언약을 파기한 자에게 주어지는 결과는 죽음이다. "내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고 하셨다.

히브리어로 언약은 "베리트 (brit)"인데 "조약"은 의미이다. 이것은 피를 흘리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켈젠 짐승 사이로 하나님께서 지나가심으로 피흘림의 언약을 맺으셨다. 언약은 피로 맺은 약정이다.

3) 언약은 구원의 약속이다.

이 약속을 보증하는 표와 인 (sign & seal)으로,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양과 할례의 예식을 주셨다. 둘 다 피흘림을 뜻하는 증표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곧 이 피흘림의 약속이 성취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한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구원 (구속)이다.

기독교 진리는 옳은 행위 (doing)를 논하기 전에, 먼저 옳은 신분 (being)이 요구되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언약의 의미이다. 죄는 일차적으로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신분의 문제이며, 관계의 문제이다. 죄는 하나님과 관계의 파괴이다.

언약신학에서는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가 (새로운 신분) 먼저이고, 그리고 난후에 인간의 행위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사람으로 창조되는 것 (신분, 관계회복)이 먼저이고 그리고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나온다. 이것이 언약의 핵심이다. 하나님과 관계의 회복이 먼저이며, 그리고 언약 백성들의 책임과 의무가 강조된다.

기독교 사상체계는 존재론 (하나님)이 먼저이고 그리고 인식론 (하나님의 존재의 전제), 또한 나아가서 기독교적인 행동(윤리)임을 알 수 있다.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존재론) 우리 인간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인식론), 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와 언약을 맺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되며, 그리고 구원 받은 성도들은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 언약적인 책임과 의무가 주어진다 (기독교 윤리).

타락 전 에덴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순종의 언약이 주어졌다. 이것이 행위 언약 (The covenant of works)이다. 이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성취되는 언약이다. 그런데 아담은 이 행위 언약에서 실패하였고, 아담뿐만 아니라,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새로운 언약을 맺어셨다. 이 언약은 우리는 은혜 언약 (The covenant of grace)이라고 부른다. 이 은혜 언약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는 둘째 아담으로서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하셨고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은혜 언약을 충족시켰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 은혜 언약 안에 들어오게 되며, 율법의 정죄 함으로부터 자유함을 받는다. 은혜 언약은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신 언약이기 때문이다. 아담이 실패한 것을 그리스도께서 완성 하셨다.

성경은 언약의 책이다. 신구약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조건적으로 죄인인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 수 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언약의 의미이다.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찬송의 제목이다.

KHL0206@gmail.com



평신도를 위한 조직신학(15)



이길호 목사 (뉴욕 성실장로교회 원로)

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오셨다. 언약 속에는 하나님의 축복과 동시에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책임과 의무가 존재한다. 이 책임과 의무는 노예적인 책임과 의무가 아니라, 언약의 백성으로서 영생과 축복을 가져오는 무한한 영광의 책임과 의무이다.

에덴동산에서 인간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의 뜻은 여기에 있었다. 하나님은 아담 (인류의 대표로서)에게 영생을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기를 요구하셨다.

이것은 노예적인 순종과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인간에게 영생과 축복을 주기 위한 순종과 시험이었다. 일반적으로 이 언약을 행위 언약이라 칭한다 (The covenant of work).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7:2. "인간

blood sovereignly administered). 하나님께서 인간과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삶과 죽음의 결속 관계를 제정하셨다. 언약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피로 맺어진 결속이다. (When God enters into a covenantal relationship with men, he sovereignly institutes a life-and-death bond. A covenant is a bond in blood, sovereignly administered.) 팔머 로버슨의 언약의 정의에는 세 가지 핵심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1) 언약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이다 (sovereignly administered).

신앙고백에서 말하는 언약의 정의에서 하나님의 "자발적인 비하" (voluntary condescension)는 하나님의 주권성을 말한다.

적인 죽음은 곧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은 인간은 실패해도 (행위언약의 실패),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언약을 신실하게 성취하셨다는 것을 나타내는 언약적 죽음으로, 언약적 속죄이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인간의 죄를 해결하는 흠 없는 제물이 될 수 없다. 그리고 만일 그리스도가 인간이 아니었다면 그는 인간을 대표하는 언약의 머리 (head of covenant)가 될 수 없다.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사람이며,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다 (two natures in one person).

죄는 도덕적인 것 이전에 언약의 파괴이며,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다.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속죄의 피는 관계의 회복이다. 은혜 언약의 중심은

Worldwide Church Directory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listing various churches and their pastors. Includes sections for 감사한인교회, 나성순복음교회, 남가주든한교회, 남가주시랑의교회, 대흥장로교회, 디아스포라선교회, 미주양곡교회, 미주평안교회, 복음장로교회, 베델한인교회, 세계소망교회, 세계선교회, 실비치 사랑교회, 열매교회, 엘피스가족원, 은혜한인교회, 주님세운교회, 주님의영광교회, 좋은마음교회, 코너스톤 교회, 토렌스조은교회, 히슬소망교회,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and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기독교 명저로의 초대(75)



이윤석 목사 (NY 부르크클린제일교회)

리차드 백스터(Richard Baxter)의 [회심, A Call to the Unconverted]

2장 하나님께서 맹세로 하신 선언

“...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이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겔 33:11)

1) 본문의 논쟁 주제: 악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성경을 읽을 때 놀라게 되는 것은 소수의 사람들이 구원받게 될 것이라는 것과 심지어 부름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대부분의 (외적인 부르심만 받은 *필자 주)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들어가지 못하고 영원한 불못에서 마귀와 함께 고통을 받게 되리라는 것이다. 불신자들은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사실을 믿지 않는다. 그러나 이것을 믿는 자들은 바울과 함께 이렇게 외치게 될 것이다. “값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여 그의 판단은 측량하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롬 11:33).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원토록 지옥의 불길 속에 있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읽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 볼 필요가 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이 문제는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가? 누가 지옥에 들어갈 만큼 이렇게 잔인한가?” 그러면 우리는 그런 죄를 인정하게 될 소수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사탄은 사람들을



불자아 하나님께 예배하려 할 수 없게 만들거나 억지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거룩한 생각을 품지 못하도록 하지는 않는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어느 한쪽이 반드시 이 모든 불행한 일의 일차적인 원인이 되어야 한다. 에스겔 18장 25절에서 사람들은 분명히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않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 길이 공평치 않다”고 하신다. 또 19절에서도 그들은 “만일 우리가 반드시 죽어야 하고 형벌을 받아야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피할 수 있을까?” 만일 그들이 설득당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죽는 것은 그들의 자신의 책임이라는 것을 알게 하신다. 그들이 믿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 주시는 것을 멈추지 않으실 것이다.

2) 본문의 내용 두 가지

(1) 하나님의 무죄 증명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죄인들의 죽음이 아니라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사는 것이라고 선언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맹세하심으로 이것을 그들에게 확

증하신다. (2) 악인들에게 회심하라 고 권면하심

악인들을 권면하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낮추사 설득하시면서까지 그들에게 왜 죽으려 하느냐고 이유를 묻기도 하신다. 이 권면의 직접적인 목적은 회개하고 돌아와서 살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함축적인 목적은 두 가지다. 첫째 그들이 사용하는 수단을 가지고서 만일 그들이 불행하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그들에게 납득시키는 데 있다. 둘째, 그들이 명백하게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설득에 대해 거절함으로써 그들의 불행은 그들 자신의 원한이었으며, 그들이 죽는 것은 바로 그들이 죽으려고 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납득시키는 데 있다.

3) 본문 속에 담겨 있는 일곱 가지 교리

* 교리 1: 악인은 반드시 회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이 불변하는 하나님의 법이다.

* 교리 2: 그러나 악인이 회개하면 살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다.

* 교리 3: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회심과 구원을 기뻐하시며 그들의 죽음과 멸망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이 계속 죄를 짓다가 죽는 것보다는 돌이켜 사는 것을 원하신다.

* 교리 4: 이것은 가장 확실한 진리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의심의 여지를 두지 않도록 확고하게 맹세로서 이것을 확증하셨기 때문이다.

* 교리 5: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에게 회개하도록 거듭 거듭 명령과 설득을 하신다.

* 교리 6: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낮추시어 사람들에게 그 이유를 납득시키면서 악인들에게 왜 죽으려 하느냐고 물으신다.

* 교리 7: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악인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멸망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책임이다. 그들 자신의 고의적 악의가 자신들의 멸망의 원인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죽는 것은 그들이 기꺼이 죽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younsklee@hotmail.com

안부모 가정사역



유효정 목사 (한부모 모임 대표)

한부모(싱글)모임 인도자를 위하여(13) 느슨한 공동체?

한 부모 사역에 대해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인 것에 비해 막상 하시는 분들이 적은 것을 보면서 '무엇이 해결책일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앞으로 나날 세 가지에 수궁할 수 있다면 의미있고 보람된 싱글 사역을 할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첫 번째가 '느슨한 연대 (Weak Ties)' 혹은 느슨한 이웃의 개념을 도입한다면 부담이 덜해질 것입니다. 느슨한 연대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는 관계의 장점은 취하되, 연결이 주는 부담을 줄이는 것으로 비슷한 환경의 사람들이 모여 서로의 나약함을 공유하며 고백할 때 소망과 더불어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족이 더 이상 사회안전망 역할을 못 다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현대인들중 특별히 한부모, 곧 싱글들은 배우자의 도움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은 물론 바람직한 환경에서 키울 수 없었던 자식들을 의존하기도 편치 않을 것입니다. 더구나 이민 사회에 살고있는 만큼 확대가족에의 기대 또한 가능치 못한 경우가 많은 것이고요. 그런 이유에서 한 부모들에게 느슨한 이웃이 더욱 더 필요합니다. 꼭 같은 장소에 거주해서가 아닌 한 달에 한 번 만나더라도 서로 이해하고, 아끼고, 배려할 때 그들의 상처와 아픔이 새로운 비전을 향해 가는 치유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가치를 공유한 정기적 만남의 느슨한 커뮤니티를 인도하는 것은 기쁨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 인도자의 구비조건으로 싱글의 경험, 곧 이혼 혹은 사별의 아픔이라고 해도 지나친 것은 아니라 봅니다. 헨리 나우웬은 '상처입은 치유자'에서 고통을 통해 얻은 상처가 깊은 사람을 치유하는 원천으로 이용되는 방법이 수역자가 깊이 이해하지 못한다면, 진정한 사역은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는데 곧 상처받은 자신의 상태를 다른 이들에게 치유의 원천으로 삼자는 의견일 것입니다. 자신이 입은 상처로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원천이 될 수 있는 '사역자'가 진정한 공동체 구성원이며 목자가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평신도 사역자인가? 아니면 신학을 공부한 사람인가?'를 나누기 전에 '사명을 받았는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도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로다"(고전 9:16)라고 말하는데 이는 그가 사역을 감당한 것은 그 일을 통해서 갖게 되는 즐거움과 보람 때문이라기보다는 그 사명이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 일이었기에 부득불하지 않으면 안되는 일로 인식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확실한 사명 없이는, 지나간 삶을 혼자서 헤쳐나온 강한 분들과 함께 하는 사역이 힘겹게 느껴질 것에 반해 사명을 받은 경우라면 주신 분께서 모른다 아니하시고 인도하시지 않을까요?

성경 말씀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갈라디아서 6:9)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모든 사역이 그렇겠지만 쉽지 않을 수 있는 한 부모 사역에 느슨한 공동체를 이루며 주님만 의지해 나갈 때 그만큼 더 아름다운 추수의 때를 맞이할 것을 믿으며 담대히 나가시는 인도자들이 나올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hyojungyoo2@yahoo.com

Worldwide Church Directory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listing various churches in NY, NJ, and Hawaii with contact info and service times.



목회서신



지용덕 목사 (미주양곡교회)

내 가슴 속에 살아 있는 사람들

비가 귀한 캘리포니아에 많은 비가 왔습니다. 비 온 뒤 어는 목요일 오후에 집 근처 공원길에 가득 자란 야생 채소를 보았습니다. 그 열무김치를 만드는데는 채소를 보자 문득 몇 해

전에 천국 가신 어머니가 생각이 났습니다. 어머니가 해주신 그 열무김치를 생각하면서 그것을 뽑아 한 봉지를 집에 가져갔습니다. 아내는 "야생 채소는 먹을 수 없다"고 집에

들이기를 거절하였습니다. 결국 함께 있던 동료 목사가 가져갔습니다. 제 아내는 제가 어머니가 생각이 나서 뜯어온 야생 나물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 야생 채소는 다른 집으로 갔지만 제 마음속에는 내 사랑하는 어머니가 살아 계셔서 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심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천국으로 가셨지만 제 마음속에 살아 계신 어머니와 늘 대화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하시던 말씀 중 "네 형을 아버지처럼, 네 형수를 어머니처럼 생각하고 귀하게 대하라"시던 어머니의 말씀을 기억하여 지금도 제 형님을 대하고 제 형수님을 대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내 어머니는 제 마음속에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비단 저만의 이야기가 아닐 것입니다. 과거를 가진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

는 마음의 내용일 것입니다. 우리들 마음속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아 있음을 말합니다.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이 세상을 떠났지만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준 이들이 살아 있을 것입니다. 동시에 지금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살아 있기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멀리 사는 이들도 내 마음속에 살아 있을 수 있고 가까이 있는 이들 중에도 늘 내 마음속에 살아 있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특별한 경험을 가진 이민 목회자의 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자연히 조국 한국에서 살면서 만나고 헤어진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아직도 제 마음속에 살아 있는 분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런 저런 일들을 만날 때에 그분들을 기억하고 추억하면서 그분들이 아직도 제 마음 한켠에 살아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동시에 조국을 떠나 거리적으로 먼 이곳 미국에 살면서 만나고 헤어

진 그 수많은 사람들이 제 마음속에 살아 있음을 문득문득 깨닫고 아련한 그리움과 아름다운 추억의 행복한 기억들 속에서 그 많은 이들을 만나고 대화하고 추억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마음이란 신비로운 광장이 있어서 가능한 마음의 활동 들입니다.

내 마음속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기억 이란 광장에 살아 있듯이 그분들의 기억이란 광장 속에 나는 어떤 존재자로 기억될까를 생각하면 오늘을 살아가는 나 스스로에게 굉장한 책임감을 통감하게 됩니다. 아름다운 추억의 사람으로, 고마운 추억의 사람으로, 진실한 목회자로, 많이 사랑하던 담임목사로 기억이 되고 싶은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 내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존재자로 기억이 될까도 생각하게 됩니다. 부

족함이 많은 작은 종일지라도 우리 주님 기억 속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예수님의 기억 속에 자리매김되는 종이 되고 싶습니다. 이것은 나의 소망이며 동시에 나의 작은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의 마음속에 주님이 살아 계십니다. 주님의 마음의 광장에 저도 기억되기를 기도합니다." 십자가 한 편이 강도처럼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눅 23:42)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강도처럼 제가 구하는 기도가 응답받기를 간절히 소망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눅 23:43)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참 주인이신 우리 주님 예수님을 모시고 오늘도 힘차게 살아가십시오.

cyd777@hotmail.com

크리스천은 자기 방어를 위해..

(6면에서 계속)

필리핀 | 라구나 산 페드로, 71번 교회 목사 Emil Jonathan Soriano:

필리핀에서는, 비록 어렵긴 하지만 합법적으로 총기를 소유할 수 있다. 정부는 매우 엄격한 요구사항을 제시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락 목적으로 총기 소유 면허를 가진 그리스도인들을 개인적으로 알고 있다.

나는 그리스도인들이 개인의 안전을 위해 총기를 소유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 세상에 더 찬란한 생명을 얻게 하고(요한복음 10:10), 죽음을 정복하는 것이다(고린도전서 15장). 총기는 죽이기 위해 고안된 죽음의 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반한다. 필리핀에서는 느슨한 총기 규제가 범죄와 과거 자경단식 암살로 이어지는 초법적 살인에 이용되었다. 성경은 죽음의 도구로 생산과 생계의 도구로 해체되고 전환되어야 한다고 명확하게 말씀한다(이사야 2:4, 미가 4:3).

더 중요하게,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얻도록, 자기를 내어주심과 고난받으신 사랑을 통해 보여주신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자는 비폭력의 윤리의 본보기로 자신

을 제시하셨다(마태복음 5:38-48; 로마서 12). 예수 안에서 우리는 자신을 방어하고 안전을 지키기 위해 무기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본다. 초대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본보기를 따랐다: 그들은 무기를 집어 자신들의 방어 수단을 찾으려 하지 않았고, 복음의 증인으로 가까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았다. 이 말이 그리스도인은 순교를 추구하고, 어떤 예방 조치도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을 평화에 기반을 둔 세상으로 변혁시키는 사역을 위해 지혜롭게 살아가는 데 무기는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훈련 받는 것은 전쟁이 아니라 평화이기 때문입니다."

싱가포르 | Salt&Light and Thir.st의 설립자이자 편집인 Edric Sng :

싱가포르에서는 총기 사용이 자기방어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누가복음 22:49-51은 그 말씀을 하신 지 몇 시간 내에 예수께서 체포되었음을 보여준다. 베드로는 배신자 가롯 유다가 안내한 군사를 막기 위해 칼을 뽑는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칭찬 대신 그를

없다. 그 드문 사례가 벌어진다면, 즉시 신문 1면의 헤드라인을 장식할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이 말은 싱가포르에 있는 한 우리는 총기 폭력의 위협에 대해 전혀 걱정하지 않고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누가복음 22장에서, 최후의 만찬 직후에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침묵 없이 사명을 수행해야 할 임박한 때를 대비하게 한다. 36절에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칼이 없는 사람은, 옷을 팔아서 칼을 사라"고 말씀하셨다. 그 시대의 칼은 많은 경우에 유용했을 것이다. 사냥을 위해서, 추수를 위해서, 다목적 도구로서.

그렇다, 그것은 무기이다. 그러나 그것은 명백히 예수님의 의도는 아니었다. 만약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전쟁을 위해 무기를 소지할 것을 의도했다면, 그는 그들이 소지했던 두 개의 검으로 너털하다고 말씀하지 않았을 것이다(38절). 그들에게 더 가져라! 많을수록 안전하다! 라고 말씀하셨을 것이다.

무엇보다 그 검들이 공격이나 자기방어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누가복음 22:49-51은 그 말씀을 하신 지 몇 시간 내에 예수께서 체포되었음을 보여준다. 베드로는 배신자 가롯 유다가 안내한 군사를 막기 위해 칼을 뽑는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칭찬 대신 그를

꾸짖으셨다: "그 칼을 칼집에 꽂아라."(요한복음 18:11)

다른 모든 사람들이 무기를 들고 다니는 적대적인 세상에서 무방비 상태로 살아가는 것은 과연 어리석은 일일까? 인간의 셈법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생명을 그토록 쉽게 앗아갈 수 있고, 심지어 자기 방어를 위해서라는 핑계로 무기를 소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셈법으로도 더 지혜로운 것일까? 왜 당신이나 가족 중 한 사람의 목숨이 다른 사람의 목숨보다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나?

전 세계가 무장하고 있다면, 당연히 우리는 따라야 하는가? 다른 말로 하면 개인적인 무장이 우리를 세상과 똑같이 만들지는 않는가?

KAPC 세계선교회 현판식감사예배

"주님을 시원케하는 선교회 될 것"

KAPC 세계선교회(이사장: 오세훈 목사)가 1월25일 오전 11시에 Lancaster 있는 소망광야 쉼터에서 현판식을 갖고 선교사들에게 휴식터를 제공하게 됐다.

세계선교회 임원들과 선교회 관계자들이 함께 모인 가운데 이사장 오세훈 목사 인도로 드려진 현판식 감사예배는 기도 장성철 목사(부이사장)에 이어 오세훈 목사가 설교했다. 오목사는 "내 이름으로 너와 함께 가리라(출33:12-19)라는 제목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가라는 명령을 받은 모세가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간절히 원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은총을 입은 것처럼, 또한 쉬게 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세계에 전파할 때에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어 복음을 전파하고 필요할 때 쉴 수 있는 공간의 쉼터가 되자"고 말씀을 전했다. 이날 감사예배는 조용중 목사(KWMC 사무총장)의 축도로 마쳤다.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세계선교회는 명실공히 선교회관을 마련함으로써 세계 각지에서 선교 활동을 하던 K.A.P.C 세계선교사들이 미주를 방문할 때 무료로 편안이 될 수 있는 안식처가 생겼다. 이날 현판식 감사예배에 참여한 임원진들은 "선교회의 주체인 주님을 시원케 하는 선교회"의 사명을 한층 더 힘있게 감당할 수 있게 됐다"고 입을 모았다.

K.A.P.C. 세계선교회의 주소는 49802 300 th St. Lancaster CA 93536 소재해 있으며 자세한 것은 213-235-7691로 연락하면 된다.

(기사제공 KAPC 세계선교회)



세계선교회 현판식 감사예배를 마치고 기념 촬영

KAPC 주관 청소년지도자 및 학부모 온라인 세미나

"다음세대를 살리려면 기성세대의 희생이 있어야..."

KAPC 주관 청소년지도자 및 학부모 온라인 세미나가 24일(금) 오후 5시 온라인으로 열렸다. 청소년 지도부 이기석 목사 사회로 열린 세미나는 흥민기 목사(라이트하우스)가 강사로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흥기표 총회장이 인사말을 전한 후 시작된 세미나에서 흥민기 목사는 "교사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과 관계를 맺는 것인데 관계는 두 가지 희생이 따른다. 첫째 시간, 둘째 돈"이라 말하며 "시간과 돈의 희생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희생 없는 제사 없듯 다음세대를 살리려면 기성세대가 희생해야 하며 그것을 통해 자녀가 새롭게 된다"고 강조했다. 흥 목사는 "교사와 학생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소통이며 이를 위해 자주 만남을 갖는 것이 좋다. 학생들과 만남을 자주 갖는데 관계진전이 어려운 것은 다수의 아이들과 한꺼번에 만남을 가져서이다. 따라서 1:1 만남이 좋다. 다만 교사가 젊은 청년 이성일 경우 1:1이 아닌 1:2정도의 만남을 추천한다. 또한 만남의 시간은 길게 갖지 않는 것이 좋다"고 조언

했다. 흥 목사는 "사역자 중에 어른설교 연습용으로 학생에 배 설교를 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러한 사역자는 퇴출시켜야 한다. 설교는 아이들 눈높이에 맞게 해야 하며 그러려면 아이들과 만남을 많이 가져야 하고 관계사역으로 진행해야 한다. 아이들은 친구가 필요한 것이 아닌 멘토가 필요하며 공통점을 갖고 있는 자, 자신을 사랑 하는 자, 지속적인 자를 좋아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려면 하나님말씀을 가르쳐야 한다. 아이들은 귀로 듣지 않고 가슴으로 듣는다. 마음으로 듣게 되는데 관계가 형성되어야 하며 같은 시간과 공간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



세미나를 인도하고 있는 흥민기 목사

등교를 같이하는 방법, 이벤트에 참석하는 방법이 관계형성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흥민기 목사는 "어른들의 경우 목회자가 이상하다고 생각되면 다른교회로 옮겨서 신앙생활을 이어간다. 하지만 아이들의 경우 교사와 목회자가 이상하다고 생각되면 교회를 옮기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고 말하며 강의를 마쳤다. 이날 세미나는 질의응답 시간을 갖은 후 흥민기 목사 기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영상취재>

신앙간증집 '천국 지옥 마지막 때' 출판기념 감사예배

"복음 증거에 작은 도구가 되기를..."

드보라 김 목사의 천국과 지옥 신앙 간증집 <천국 지옥 마지막 때> 출판기념회가 지난 1월 14일 엘에이 용궁식당에서 있었다. 앤지 박 전도사의 사회로 시작된 출판기념회는 기도 관순희 권사, 특별찬양 손사라 권사에 이어 백성철 목사(사모)하는교회 담임, 에피포도예술과문학 대표가 말씀을 전했다. 백 목사는 "하나님의 지팡이로 사용되는 천국 지옥 마지막 때"(출애굽기 17:9)의 제목으로 "천국 지옥 마지막 때" 작품이 모세가 사용했던 지팡이처럼 하나님의 기이한 기적의 역사와 구속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소망한다"고 말씀을 전했다. 한편 저자 드보라 김 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특별히 출판된 '천국 지옥 마지막 때'는 예수님의 눈물이며 사랑의 편지"라고 말하며 "이 책이 복음 증거에 작은 도구로 사용되면 좋겠다"고 바램을 피력했다. 이날 유의숙 집사가 축사의 말을 전했으며 조은혜 목사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드보라 김 목사는 월드미션 신학대학교를 졸업했으며 한마음교회, 예문교회, 풍성한교회

에서 피아니스트로 섬기다 현



앞줄 좌측 두번째가 저자 드보라김 목사

미주크리스천신문 구독문의

611 S. Catalina St. #305 L.A. CA 90005 213)674-7982,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718)886-4400 nychpress@gmail.com



동부교계 게시판

영생한국학교 학생모집

영생장로교회에서 주관하는 영생한국학교에서 학생을 모집한다. 수업일정은 2월 10일부터 5월 20일까지이며 금요일은 온라인, 토요일은 대면 수업으로 병행한다. 등록은 영생장로교회 홈페이지(yzspc.org)를 참고하면 된다.

▲문의: 강우주 집사 443-890-6102

프라미스교회 한국어학교 모집

프라미스에서 주관하는 한국어학교에서 학생을 모집한다. 수업일정과 대상은 2월 17일부터 6월 9일까지 금요일만은 1학년 이상, 2월 18일부터 6월 10일까지 토요일만은 4세-8학년이다. 과목은 한국, 역사, 문화, 예절, 절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의: 최덕희 전도사 551-265-0408

필그림선교교회, 2023년 썸머바이블캠프 등록시작

필그림선교교회(담임 양춘길 목사)에서 선교적 목적을 바탕으로 아이들에게 영성과 인성, 지성과 체력까지도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썸머바이블캠프를 7월 5일부터 8월 11일까지 개최하며 등록을 2월 1일(수)부터 받는다. 이번 썸머캠프는 PSBC와 PSBC+를 함께 진행한다. PSBC: Kinder - 5th grader 어린이들 대상, 수학과 영어, 예배와 다양한 Activity 준비 PSBC+: 6th - 8th grader 어린이들 대상, 수학과 영어(Reading, Writing), SSAT, ISEE 등

▲문의: 필그림선교교회 201-461-1225

시카고한인교회 담임목사 청빙

시카고한인교회는 PCA 소속된 시카고 인근 Hoffman Estates에 위치한 교회로 4대 목사님이 사임함에 따라 5대 목사님을 모시고자 한다. 자격조건은 정규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M.Div. 학위를 가지신 분, 목회경력 5년 이상, 한국어와 영어 설교 가능, 미국 PCA 교단에 소속, 가입이 가능하신 분,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하실 수 있는 분이다. 제출서류는 본 교회 양식 지원서, 목회 계획서, 목사 안수 증명서 및 M.Div. 최종 졸업(학위) 증명서, 추천서(2명 이상), 자기소개서, 1년 이내의 한국어 설교(2편) 및 영어 설교(1편, optional) 동영상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에서 <http://www.kcclove.org/> 확인하면 된다.

▲문의: kcccpitapp23@gmail.com

워싱턴예수사랑교회 EM 교역자 청빙

워싱턴 D.C. 근교 북버지니아 찬틸리에 위치한 워싱턴예수 사랑교회(담임 이성웅 목사)에서 Youth & Young Adult를 담당할 EM Half or Part time 교역자를 아래와 같이 청빙 한다.

자격조건: 정규신학대학 재학 중 혹은 졸업, 영어 설교가 자유롭고 담당 사역 경험자 제출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교회 주소: 14201 Sullyfield Cir., Suite 200, Chantilly, VA 20151 웹사이트: www.wjlc.org

▲문의 및 서류제출: wjlc1028@gmail.com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미주동부 동문회 신년하례예배 및 정기총회

신임회장 이규섭 목사, 수석부회장 이윤석 목사, 부회장 장의한 목사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미주 동부 동문회가 1월 30일 (월) 오전 10시 30분 제자삼는교회(담임 이규섭 목사)에서 열려 신년하례예배 및 정기총회를 가졌다.

정광희 목사(82회) 인도로 드러진 예배는 기도 이윤석 목사(80회), 성경봉독 정광희 목사, 설교 이규섭 목사(79회), 헌금기도 우종현 목사(85회), 광고 정주성 목사(86회), 축도 김남수 목사로 진행됐다.

이규섭 목사는 "신한 영향력(창세기 24:1-7)"이란 제목으로 "아브라함의 종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신한 영향력을 받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그의 사명을 잘 감당했다"고 말하며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시대적 사명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에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정기총회는 정광희 목



신년하례예배를 마친 후 참석자들이 함께 사진촬영을 했다

사(회장) 인도로 시작하여 서기 우종현 목사의 회원호명이 있은 후 회장 정광희 목사가 개회를 선언하고 각 부서의 보고를 받은 뒤 임원선거를 했다. 신임 회장단은 회장 이규섭 목사, 수석 부회장 이윤석 목사, 부회장 장의한 목사가 맡았다. 그 외 임원은 회장단에게 위임했다. 이어 신임회장 이규섭 목사가 직전 회장 정광희 목사에

게 감사패를 증정했다. 이규섭 목사(신임 회장)의 기도 후 폐회를 선언했다.

<홍현숙 기자>



신년감사예배 및 하례식 후 참석자들이 함께 기념촬영을 했다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정기총회, 박이스라엘 회장 연임

지난해 매달 30불씩 후원하는 해외아동결연 수 101명 기록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는 2023년 첫 월례회이자 정기총회를 1월 25일(수) 오전에 리빙스톤교회(유상열 목사)에서 열었다. 총회를 통해 회장 박이스라엘 목사가 연임됐다.

13명의 회원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된 미동부기아대책 총회에서 사무총장 박진하 목사는 사업보고를 통해 "지난해에는 팬데믹으로 중단되었던 단기선교와 후원자의 밤 등을 다시 시작했다"고 보고했다. 또한 "지난해 단기선교는 과테말라였으며, 올해는 김인한 장로가 황영진 목사가 사역하는 엘살바도르에 단기선교를 나가기 위해 제안하고 시드머니를 헌금했다"고 보고했다. 전희수 목사는 감사보고를 통해 기아대책 사업의 두 줄기인 해외아동 결연 사업과 선교를 위한 일반회계를 나누어 보고했다. 특히 매달 30불씩 후원하는 해외아동결연 수가 5명이 늘어 다시 1백명을 넘어 101명이 되었다.

회장 연임을 추대받은 박이스라엘 목사는 "부족하지만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했다. 앞서 열린 예배는 육민호 목사의 사회로 진행됐다. 한준희 목사가 "예배할 때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교회밖 세상에 나가서도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했다. 박이스라엘 목사는 "크리스찬의 새로운 삶(로마서 12:1-2)"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성령의 역사로 마음의 변화를 받고 행동까지 변화되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단체가 되고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소원했다.

한필상 목사의 인도로 합심기도가 진행되어, 기아대책과 선교지 그리고 후원아동 및 후원자를 놓고 뜨거운 합심기도를 인도해 나갔다. 이어 이종명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기아대책은 콜롬비아, 페루, 과테말라, 코트디부아르, 엘살바도르, 에콰도르에 거주하는 101명의 아동을 후원하고 있으며 후원비는 아동 1명당 한 달에 30달러다.

홈페이지(breadngospel.org)에서 더 많은 정보를 볼 수 있다.

<정리: 김재상 기자>

뉴저지교협, 신년감사예배 및 하례식

"공감과 공유로 공조하는 교협" 되기를

뉴저지 교협(회장 박근재 목사)은 2023년 36회기 신년감사예배 및 하례식을 "공감과 공유로 공조하는 교협"이라는 새해 표어 아래 1월 29일(주일) 오후 5시 필그림선교교회(양춘길 목사)에서 드렸다.

1부 신년감사예배는 사회 김동건 목사(부회장), 기도 류정환 장로(부회장), 성경봉독 이준규 목사(체육분과), 찬양 뉴저지 장로성가단, 설교 김동욱 목사(전직회장)의 설교로 진행됐다.

김 목사는 "꿈꾸는 교협(이사야 43장 19-21절)"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코로나를 겪으면서 교회마다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새해를 맞이하면서 교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어야 한다. 어려운 시대이지만 기대하며 꿈을 꾸고, 꿈을 꾸게 해주는 교회가 되자"고 전했다.

이어 미국과 조국을 위한 특별기도 한순규 목사(땅끝교회), 교계와 교협을 위한 특별기도

오종민 목사(뉴저지우리교회), 헌금송 뉴저지남성목사합창단, 봉헌기도 박성철 장로(회계), 광고 신철웅 목사(총무), 축도 정찬수 목사(전직 회장)로 진행됐다.

2부 하례식은 사회 신철웅 목사(총무), 국기에 대한 경례와 국가제창, 신년사 박근재 목사(회장), 축가 뉴저지 사모합창단, 뉴저지선교협합창단, 축사 이준성 목사(뉴욕한인교협 회장), 이사장 위촉패 및 이사 위촉장 수여, 폐회기도 고한승 목사(전직회장) 순으로 진행됐다.

뉴저지교협은 청소년 분과 주관으로 호산나 청소년 전도대회가 2월 3일(금) 오후 7시, 2월 4일(토) 오후6시에 참빛교회(담임 황 주 목사)에서 열리며 교육분과 주관으로 로고스 바ই블 워십이 21일(화)부터 AWCA에서 8주간 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리: 김재상 기자>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정기총회 후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했다

인/터/뷰

“전시를 통해 힐링의 메시지 전하고 싶어요”

삶의 현상이 예배가 되는 것이 예수를 믿는 자들의 소망일 것이다. 이러한 소망이 실제 삶이 되는 것이자 주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신예진 작가는 바로 그의 작업시간은 예배의 시간이다. 2월에 열리는 LA아트쇼 참가차 LA를 방문한 신예진 작가를 만나보았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표현해낸다”라는 마음으로 작업하고 있어요. 작업하는 시간이 하나님과의 만남이자 예배하는 시간이자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이 되고 있는데 제가 하는 일이 예배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라고 입을 여는 신 작가. 어린 시절부터 그림그리기를 좋아했다는 신 작가는 자신이 좋아하는 일이 자신의 직업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다며 시종일관 미소를 잃지 않았다.

“유치원에 가는 것보다 미술학원에 다니는 것을 좋아했어요. 그리고 그 좋아하는 미술이 저의 진로가 되었고 예고와 미대에 진학하게 되어 작가의 길을 걷게 되었어요. 생각해보면 감사한 일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이 직업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다른 길을

가게 되는데 저는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갖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이야기 할 수 있으니까요” 그가 작가가 되는데 있어서 가장 큰 힘이 되어준 사람은 바로 남편이라며 남편이 권유로 공모전에 참가한 것이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다고 말했다. “결혼해서 아이를 키우면서 그림 그리기를 좋아해서 아이를 키우면서 그림 그리기를 내려놓게 되었는데 아이가 조금 크고 나니 시간적인 여유가 생겼어요. 그때 남편이 공모전 참가를 권유했고 세군데 참가를 하게 되었어요. 감사하게도 세군데 모두 저의 작품이 선정이 되어 작가가 데뷔할 수 있게 되었어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림을 통해 하나님께 이야기하게 하는 사명을 강하게 심어주시려고 그러셨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신 작가 작품에는 유독 왕관을 그리는

이유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그는 하나님의 성품이라 대답했다. “저는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려는 노력이 왕관을 벗어가는 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왕관은 바로 우리의 성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성품이라는 왕관을 벗어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인생의 모든 길들은 묵묵히 걸어온 각자의 인생에게 바치는 왕관입니다. 그 왕관을 통해 한사람 한사람 모두 소중한 존재라는 힐링의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왕관을 그리게 된 계기에 대해 기자가 그에게 질문을 하자 그는 “하나님께 받을 면류관을 그리는 마음으로 모든 자에게 나눠주는 것”이라고 대답했다. “저희 가족은 매주 주말에 모여 가족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LA아트쇼 참가하는 성품을 그리는 신예진 작가



신예진 작가(사진 오른쪽)와 김휘중 교장

어느날 예배 때 나누었던 말씀이 디모데후서 4장 7-8절이었어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 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자애와 인내를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나눠’라는 말씀이 제 마음에 닿는 것 같아요. 그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면류관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왕관을 그리게 되었어요.” 신예진 작가의 데뷔부터 현재까지 활동에 가장 큰 후원자인 남편인 김휘중 GICS 좋은나무기독교학교 교장은 “아내인 신예진 작가의 작품을 통해 왕관의 참의미인 ‘하나님께 받을 면류관’임을, 그리고 각자의 삶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임을 다시 컨펌이 되었으면 한

다”며 “아내가 그림을 그리는 시간과 작가로 활동하는 시간에는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데 이 또한 하나님께서 마련 해주신 축복의 시간”이라고 말했다.

신예진 작가는 오는 2월15일부터 19일까지 LA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LA아트쇼에 참가하게 된다. 신 작가와 그의 작품은 웨스트홀 아인갤러리 부스에서 만나볼 수 있다. 2022년까지 한국에서 활동을 했었는데 올해부터 해외 일정도 잡았다고 말했다. 그 첫 번째 일정이 LA 아트쇼이며, 모나코, 독일, 프랑스, 대만 전시회가 계속 잡히게 되었다고 말했다.

신예진 작가는 “2023년은 한국을 비롯한 전지가 힐링의 메시지 전하고 싶다. 잠16:9 ‘말씀인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시니라’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도하며 한결 한결을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많은 격려와 기도 바란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남북통일 코리아 찬양단 탈북자매 간증집회

“하나님은 북한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북한 사역 이어가야”

나성순복음교회(담임 진유철 목사)에서 남북통일 코리아 찬양단 탈북자매 간증집회가 27일(금) 오후 7시30분에 열렸다. 진유철 목사 사회로 열린 이날 간증집회는 글로벌선진학교(이사장 남진석 목사)가 주최하는 2023 라틴아메리카 글로벌교육대회 홍보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남북통일 코리아 찬양단의 윤설미, 정유나, 이채원, 김소연이 참여해 공연과 간증을 했다. 윤설미 대표(남북통일코리아)는 “북한에서 7년간 3번 탈북을 했으며 체포가 되어 두 차례 복송이 되었으며 세 번째 탈북을 했을 때 한국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두 만강을 건너면 좋은 세상이 기다리는 줄 알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 중국에서 인신매매를 당했으며 한족과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는데 공안에 체포되어 복송을 당했다”고 회상했다. 그는 “교도소에 투옥되었을 때 아무잘못도 없이 비참하게 생활하는 나 자신을 보며



남북통일 코리아 찬양단 탈북자매 간증집회를 마치고 관계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삶을 마감하려고 했다. 하지만 면회를 온 어머니로부터 중국에 있는 내 아이의 사진을 보며 살아야겠다는 의지를 다시 갖게 되었고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간증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 하나님은 북한을 포기하지 않으셨다. 북한을 위한 사역을 하고 싶다.”며 “북한에 태어나게 해주시고 고난을 알게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이날 윤설미 대표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아코디언으로

(박준호 기자)



CBMC 남가주연합회 신년하례회 및 기든그로브지회 창립

CBMC 남가주연합회 신년하례회 및 기든그로브지회 창립

“크리스천 실업인 모임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단계”

미주한인기독교실업인회(CBMC 총회장 강승태) 미서부총연합회 남가주연합회(회장 이봉우) 2023 신년하례회 및 기든그로브지회창립식이 1월28일(토) 오전 10시 더블트리 부에나파에서 열렸다. 강승태 회장은 “CBMC는 실업인과 전문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그리스도가 구주임을 증거하는 국제적 사명공동체이며 크리스천 실업인 모임으로 96개국에 등록되어있는 조직이며 한국은 사단법인 280개 해외 한인 130여개 지회와 7500여 회원이 있다. 미주한인 CBMC는 1975년에 LA 지부를 만들면서 시작됐다. 한국 CBMC때문에 국제CBMC가 살아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는다. 올 한해 CBMC 사역이 주안에서 아름답게 진행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최혜나 총무(남가주연합회) 사회로 열린 신년하례회는 심상은 목사가 축사했으며 이봉우 회장(남가주연합회)이 환영사를 통해 “기독교실업인회는 우리가 몸담는 비즈니스 세계에 하나님을 모시자는 목적으로 정기적으로 친교를 나누며 성경공부를 하며 서로 격려하며 주변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단계”라 소개했다. 이어 강승태 총회장이 최혜나 부에나파지회 신임회장

에게 임명장을, 그리고 최상태 부에나파지회 직전회장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이날 축사는 한기형 목사(미주CBS기독교방송대표), 이사호 회원이 축가를 불렀다. 이어 열린 기든그로브지회 창립대회는 윤우경 부회장 사회로 시작, 신용 집사(OC전도회연합회 회장)가 개회기도 했으며 안신기 남가주연합회 지도 목사가 ‘비즈니스세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라(눅 17:20-21)’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민경 회장은 “계시록 2장 10절 말씀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일에 충성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창립대회는 김영수 장로(기든그로브지회) 기도로 마쳤다. 한편 이날 대회가 열리기전 오현근 부회장(남가주연합회) 사회로 열린 예배는 최상태 부회장(남가주연합회)이 기도했으며 이지영 회계(남가주연합회)가 성경봉독했다. 이어 이영선 목사(미주복음방송사)가 ‘CBMC에 허락하신 소명(눅 18-19장)’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뒤 이영선 목사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한국대학합창단 단원들과 동문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한국대학합창단 미주순회연주

팬데믹으로 4년 만에 열린 미주공연 ‘성향’

한국대학합창단(단장 김진태 박사, 지휘 신승용 교수) 2023년 미주 순회연주가 지난 1월13일부터 30일(주일)까지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텍사스, 남가주에서 열렸다. 29일(토) 오후 6시30분 파사데나장로교회 리사 헨스 담임목사 환영인사와 김중숙 한인회중편대회장의 사회로 열린 공연은 ‘은혜, 영광, 지혜, 또 감사’,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하나님을 찬양하라’ 등 성가곡, ‘교회를 결혼하러 가죠’, ‘리듬에 맞춰 춤춰요’ 등 뮤지컬 및 쇼트, ‘나는 주의 자녀’, ‘내 맘속에 주의 성령’ 등 복음성가 및 영가를 불렀으며 ‘이 땅에 평화 주소서’를 한국대학합창단 동문이자 파사데나장로교회 한인회중 찬양대 지휘자 김

종숙 사모와 청중들과 함께 불렀다. 이날 연주회는 ‘기적’, ‘주기도’ 등을 앵콜곡으로 부른 뒤 최진영 본교회 한인회중 담임목사 축도로 마쳤다. 본 합창단은 1990년부터 2019년까지 3년 주기로 미주공연을 실시해왔지만 2020년에 전 세계적으로 기승을 부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4년 만에 미주순회공연이 성사되었다.

한편 본 합창단 남가주 일정은 24일(수) 오전 10시 시스터 오브 세인트 조셉 오브 카운텔렛 수녀원, 28일(금) 미라클랜드 한인침례교회, 29일(주일) 오전 10시 파사데나장로교회 미국회중예배 특송, 오후 5시 갈릴리산교회에서 가졌다.

(박준호 기자)



라하브라 경찰서를 방문 사랑의 한식 도시락을 전 모세 목사(왼쪽 두번째)가 전달했다

한인 경찰 채플린 사역팀, 경찰서 찾아 사랑의 도시락 전달

한인 경찰 채플린 사역팀이 LA동부에 있는 라하브라 경찰서를 방문하여 80여명의 경찰관들에게 한국음식을 접대하며 그들의 봉사과 수고를 격려했다. 1월 25일(수) 라하브라 경찰서를 찾은 전모세 목사(국제 한미 채플린 협회 차프 겸 한국경찰청 해외교경 중앙협의회 공동사무총장)을 비롯한 사역팀은 한국음식으로 된 도시락을 모든 경찰관들에게 전달하며 감사의 뜻을 전달했다. 이날 경찰서 방문단에는 우대권 목사(한국경찰청 해외교경 중앙협의회 회장)도 동행하여

사랑의 도시락을 함께 전달했다. 전모세 목사는 “우리 크리스천 채플린 사역팀들이 새해를 맞이해서 매일 목숨을 걸고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수고하는 경찰관들을 격려하기 위해 사랑의 봉사활동을 펼친 것이 대단히 기쁘고 감사하다. 이 사역을 위해 물질로 협조해 주신 우 목사님, LA 시티교회 씨니 기 목사님, 전영필 집사님, 한국 방문 중에도 후원에 참여해 주신 유이상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정리: 박준호 기자)

감신 서부동문회 신년하례회

동문 자녀 5명에게 장학금 전달식 가져

감신대 미 서부지역 동문회(회장 김중환 목사) 신년하례회가 지난 23일(월) 오전 11시 LA한인타운에 있는 제이제이그랜드 호텔에서 열렸다. 지성은 동문회 부회장의 사회로 열린 1부 예배에서는 백승배 목사의 기도, 이은철 목사의 설교, 박성환 목사의 광고 순으로 진행되었다. 2부 순서는 오경환 부회장의 사회로 교가제창, 장학금 전달식으로 진행되었는데 지난해 장학금 모금 골프대회를 통해 조성된 장학금을 5명의 동문 자녀들에게 전달했다. 장학금 모금 제4회 골프대회는 지난해 11월 14일 28명이 참가한 가운데 패사디나 브룩사이드 골프코스에서 열린 바 있다.

이번 동문회 하례회에선 테너 박인수 교수의 진행으로 ‘봄의 소리 음악회’가 제4부 행사로 개최되어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날 음악회엔 소프라노

김미경(김중환 동문회장의 부인), 테너 오위영, 바리톤 권상욱 등이 출연했고 이하는 피아니스트가 참여했다. 이 음악회를 위해서는 동문인 강신욱 내과, 시온연합감리교회, 라팔마연합감리교회, 새생명교회, 온마음교회 등이 후원에 참여했다. 이날 부부동반으로 열린 하례회엔 김동형, 정지한, 윤선식, 민병렬 목사 등 원로동문들이 참석하여 후배 동문들을 격려했다.

한편 이날 하례회가 열린 호텔의 전기가 갑자기 정전되는 바람에 모든 순서가 촛불을 켜 가운데 진행되어 불편을 겪기도 했지만 많은 동문들은 오히려 “낭만적인 동문회였다” “춥더라도 행복한 하례회를 가질 수 있었다” “전기가 끊긴 사태 속에서도 하례회를 준비하고 진행한 임원진들의 수고에 감사한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정리: 박준호 기자)

서부교계 게시판

LA 생명사역 콘퍼런스 개최

대구동신교회 생명사역훈련원(원장 권성수 목사)이 주최하는 ‘LA생명사역콘퍼런스’가 오는 2월 13일(월)부터 15일(수)까지 미주 서부지역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알바인 베델교회(김한요 목사)에서 개최된다. ‘생명사역 콘퍼런스’의 주강사인 권성수 목사는 총신대학교(합동)에서 14년간 교수로 재직하였고 대구동신교회에서 22년간 목회를 하면서 신학과 목회의 균형을 이룬 목회자다. 현재 생명사역훈련원 홈페이지(www.dslmc.net)에서 등록 받고 있으며 등록비는 100달러, 등록시 생명사역을 위한 필독서 5권과 성도 훈련 교재 5종류 10권을 지원하며, 점심과 저녁 및 간식을 제공한다. 자세한 문의는 생명사역훈련원 홈페이지(www.dslmc.net)이나 이메일(jangskok@naver.com)으로 할 수 있다. ▲ 문의: 알바인 베델교회 사무실(949)854-4010

이민역사 120주년 기념 한국 하와이연합집회

이민역사 120주년 기념 한국 하와이연합집회가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하라’라는 주제로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담임 한의준 목사)에서 2월12일(주일)부터 15일(수)까지 오후 7시에 개최된다. 이번집회의 강사는 장학봉 목사, 하근수 목사, 문강원 목사, 황형택 목사. ▲ 문의: (808)536-7244

센터메디컬그룹 주최 건강세미나

센터메디컬그룹(대표 제이 초이)이 ‘알아 두면 좋은 의학 상식’을 주제로 23년 첫 주치의 순회 건강 세미나를 오는 2월16일(목) 오후 2시 풀러튼 아메리지 빌라(AMERIGE VILLA, 343 W. AMERIGE AVE FULLERTON CA 92832)에서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의 강사는 센터메디컬그룹 단순 박사가 강연한다. 센터메디컬그룹은 참석자들에게 푸진한 선물을 담은 구디백과 함께 도시락도 전달한다. ▲ 문의: (714)980-3532

세미한 부흥회

세미한교회(담임 이은상 목사)는 세미한 부흥회를 ‘빛의 자녀 들처럼’이란 주제로 2월10일(금)부터 12일(주일)까지 본교회 캐물튼 분당에서 개최한다. 부흥회 강사는 이찬수 목사(분당우리교회 담임)이며 일정은 10일(금)과 11일(토) 오후 7시, 12일(주일) 오전 10시와 오후 1시이다. 또한 달라스 포트워스 지역 목회자, 신학생, 사모들을 대상으로 목회자세미나를 11일(토) 오전 10시(점심 제공)에 개최한다. ▲ 문의: (972)446-0178



은혜한인교회 2023년 신년 축복성회에서 조지훈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은혜한인교회 2023년 신년 축복성회

“다음세대를 기도로 축복하고 말씀으로 양육해야”

은혜한인교회(한기홍 목사)의 2023년 신년 축복성회가 1월 26일(목)부터 1월 29일(주일)까지 ‘다음세대와 연합하여 땅 끝까지’란 주제로 조지훈 목사(조이풀교회)가 강사로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찬양팀의 찬양인도와 송종호 목사 사회로 19일(주일) 오전 11시30분에 열린 3부 예배는 이재근 장로가 기도했으며 은혜성가대가 찬양했다. 이어 조지훈 목사가 ‘순종! 막혔던 유업이 계승되다(계 15:3)’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조지훈 목사는 “하나님의 유업은 정확한 구조에 의해 계승된다. 아버지와 아들의 구조를 통해서 계승 된다. 다음세대를 기도로 축복하고 말씀으로 양육함으로써 믿음의 유산을 잘 흘러보내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

라며 “하지만 믿음의 유산을 잘 흘러보내는 것은 매우 어렵다. 이는 믿음을 가졌다는 자들이 영적인 사람이 아닌 혼적 땅 끝까지’란 주제로 조지훈 목사(조이풀교회)가 강사로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찬양팀의 찬양인도와 송종호 목사 사회로 19일(주일) 오전 11시30분에 열린 3부 예배는 이재근 장로가 기도했으며 은혜성가대가 찬양했다. 이어 조지훈 목사가 ‘순종! 막혔던 유업이 계승되다(계 15:3)’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조지훈 목사는 “하나님의 유업은 정확한 구조에 의해 계승된다. 아버지와 아들의 구조를 통해서 계승 된다. 다음세대를 기도로 축복하고 말씀으로 양육함으로써 믿음의 유산을 잘 흘러보내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

(박준호 기자)



감신동문회 신년하례회 참가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감리교인 5명 중 3명 “NCCK 탈퇴” 찬성

웨슬리안타임즈 온라인 설문, 목회자 60%·평신도 71% 찬성

감리교인 5명 가운데 3명 이상이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탈퇴를 찬성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평신도의 경우 응답자의 70% 이상이 NCCK 탈퇴에 찬성의 뜻을 나타냈다. 웨슬리안타임즈에 따르면 응답자의 64.5%가 ‘NCCK를 탈퇴해야 한다’고 답했다. 목회자의 경우 60.3%, 평신도는 70.7%가 탈퇴에 찬성했다. ‘NCCK 탈퇴는 시기상조’라고 답한 비율은 35.5%였다. NCCK 탈퇴를 요구하는 이들은 이 단계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지지하고 동성애를 옹호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해 10월 열린 기감 총회에서는 NCCK 탈퇴를 놓고 격론이 벌어지기도 했다. 기감은 최근 총회실행부위원회를 열고 NCCK를 둘러싼 각종 논란의 사실 여부와 재편과 관련된 항목도 주목할 만하다. 기감

은 2021년 입법의회에서 현재 국내외 12개로 부를 조사하는 NCCK대책연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하기도 했다. 구성된 연회를 5~6개로 재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연회 재편에 대한 찬반을 물었을 때 찬성 비율은 68.9%로 반대(31.1%)보다 2배 이상 높았다. 목회자의 경우 66.5%, 평신도는 72.6%가 연회 재편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 감리교 산하 3개 신학대(감리교신학대 목원대 협성대)의 신학대학원을 웨슬리신학

대학원(가칭)으로 통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3.0%가 찬성했다. 코로나19가 퍼지기 전과 비교했을 때 교인 수가 70% 이상 수준으로 회복했다고 답한 비율은 59.0%로 조사됐으며, 코로나 이후 출석 성도가 절반 아래로 감소해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전체의 11.1%였다.



세대 연합한 찬양과 기도의 옹광로 ‘유스비전캠프’

초교과적으로 뭉친 소형 교회들이 주도

올해 ‘유스비전캠프’가 지난 1월 26일~28일 고려신학대학원에서 45개 교회 6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다. ‘길과 진리와 생명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열린 유스비전캠프는 올해로 18년째를 맞았다. 이 캠프는 대형교회 및 단체가 주도하지 않는다. 전국에서 초교과적으로 뭉친 소형 교회들이 주도하고 있다. 캠프 진행 방식도 특징을 갖는다. 다른 집회와 달리 유스비전캠프는 놀이 프로그램은 일절 배제했다. 2박3일 내내 오직 말

씀, 찬양, 기도에만 진행된다. 캠프를 주최한 유스비전선교회 장용성 목사는 “오후 5시까지 기도와 말씀이 중심이 된 예배가 진행된 후 저녁 7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캠프의 하이라이트인 찬양 집회가 열린다”며 “모든 시간동안 비단 청년세대만이 아닌 어른들도 자연스레 어우러져 하나되는 영성옹광로가 구현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캠프를 경험한 성도들의 반응은 긍정적이다. 노는 캠프가 아닌 예배에만 집중하는 캠프여서 자칫 재미없고 효

과가 없을 수도 있다는 일각의 우려는 기우였다. 캠프에 세번째 참가한 김성권(19) 학생은 “처음에는 걱정을 했지만 막상 경험하고 보니 은혜롭고 기억에 오래 남는 캠프였다”며 “주변 지인들에게도 추천을 해줘서 이번에 함께 오게 됐다”고 말했다. 캠프가 처음이라는 박병우(45)씨는 “‘유스비전’이라고 하길래 젊은이들이 드리는 캠프인 줄 알았었다”며 “하지만 젊은이들 못지 않게 나이든 어른들도 많이 참가해 자연스레 어울리는 것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전했다. 안식년 차 한국에 들어와 캠프에 참가한 선교사 가정도 눈에 띄었다. 태국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 유옥임(여·55) 선교사는 “직접 현장에 와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은 축복이었다”며 “조만간 태국에서도 선교사 자녀들을 위한, 그리고 한국의 영적 부흥을 위한 유스비전 캠프가 개최되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유스비전선교회는 다음 달에는 의정부 노회 연합청소년캠프와 필리핀선교회회를 계획하고 있다. 또 찬양 사역자나 말씀 강사를 초청하기 어려운 교회를 위해 자비량으로 무료 사역도 진행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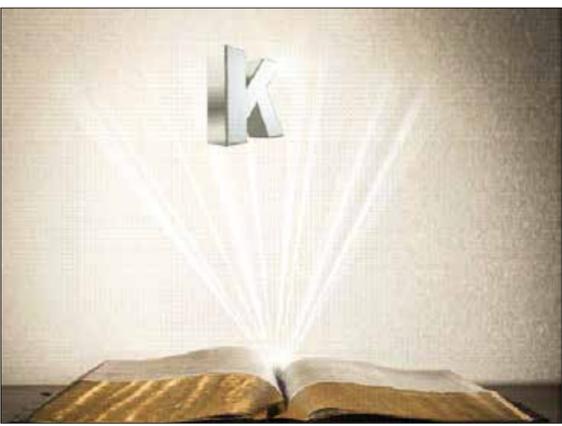
미자립교회에 맞춤 양복 선물, 엘부림양복점 ‘백년소공인’

중소벤처기업부가 100년 이상 존속, 성장을 기대하며 선정

지난 40여년간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에게 맞춤 양복을 선물하고 있는 엘부림양복점(대표 박수양)이 지난해 말 ‘백년소공인’으로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백년소공인은 고객의

꾸준한 사랑을 받아온 점포를 대상으로 앞으로 100년 이상 존속하고 성장하기를 기대하며 중소벤처기업부가 선정하고 있다. 엘부림 양복점은 50년 전통 맞춤 정장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로 고객 체형에 최적화된 핏을 제공하여 고객 만족도가 높은 곳이다. 특히 미스터트롯 정동원을 비롯해 텔런트 정보석, 야인시대 김두한역 안재모, 쌍갑박준규, 박영지, 김정현, 바리톤 김동규, 가수 이상원, 골프 선수 양용은, 최진규 아나운서 등 유명 인사들의 단골 양복점이다. 2013년에는 필리핀 피델라모스 전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 권영해 장관의 소개로 옷을 맞추기도 했다. 지난해 11월 11일 현판식에는 이병권 서울중소벤처기업청장, 임준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박수양 엘부림 대표는 “양복을 맞추며 번거로웠던 가뭄을 해결해 한번 방문으로 고객의 가정에 배송까지 될 수 있도록 올인원 시스템을 구축했다”며 “해외에도 주문, 입을 수 있다”고 말했다.



K신학, 선교 개척지를 넘어 세계가 배우러 온다

한국에 온 유학생의 K신학 리얼 체험기

타지키스탄 출신 러시아인이자 고려인 3세인 다이애나(35)씨는 현재 아신대 신학대학원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다. 구약학 전공인 그는 매 주말 경기도 남양주시 동부광성교회로 출근한다. 영어예배부 전도사로 4~7세 미취학 아동에게 영어로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다. 다이애나씨는 “학교가 있는 양평에서 남양주의 교회까지 오가는 게 힘들지만 순수한 아이들과 지내다 보면 저절로 힐링이 된다”라고 말했다.

(32)씨는 고교 시절 부흥회에서 만난 한국인 선교사 추천으로 국내 신학대에 입학했다. 중학생 때 가정교회에서 복음을 접한 그는 대학에서 교회음악을 전공하길 꿈꿨는데 이를 알게 된 교회 목회자가 한국인 선교사를 소개하며 한국 유학을 권했다. 천씨는 “그때 만난 선교사님의 도움으로 2015년 서울신학대 교회음악과에 진학했다”

며 “학부 졸업 후엔 장신대 교회음악대학원에 진학했는데 교수님께서 ‘나중에 사역하려면 신대원 석사 학위가 있는 게 좋다’고 했다. 그래서 신대원에도 진학했다”고 말했다. 이들이 한국 신학교의 강점으로 꼽은 건 ‘전문성 높은 신학교육’과 ‘정통 신학 추구’ ‘신학교와 교회 간 연계가 끈끈하다’는 것이다. 학교에서 배운 걸 현장에 바로 적용하는 실습 구조도 뛰어나다고 평했다. 이어 “아무래도 배울하는 신학도 수가 한국이 훨씬 더 많아서 그런 게 아닌가 싶다”며 “한국어를 더 잘했으면 풍부한 학술자료와 교회 구조 등 여러 강점을 익힐 수 있을 텐데 그러지 못해 아쉽다”고 했다. 양씨 역시 “학교와 교회 연계가 체계적”인 걸 한국 신학교의 강점으로 꼽았다. 대학 관계자들은 “장학금 때문에 한국 신학교를 찾는 시대는 이제 지났다”고 본다. 장신대 신대원 교학실 관계자는 “해외 선교지에도 신학교가 점점 세워지고 있어 굳이 한국에 오지 않고 본국에서 공부하는 사례도 늘어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갈렙선교회 ‘비온드 유토피아’ 선댄스영화제 관객상 수상

코로나19 직전 탈북민 가족의 구출 과정 담았다

탈북 가족의 구출하는 과정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 ‘비온드 유토피아’(Beyond Utopia)가 제39회 선댄스영화제에서 관객상을 수상했다. 영화 ‘비온드 유토피아’(감독 매들린 개빈)는 복잡한 북한 정치 상황과 북한 주민이 겪고 있는 인권유린 문제, 대한민국의 선교단체가 기독교 정신에 따라 생명을 살려내는 과정을 속도감 있고 흥미롭게 그려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기독교가 불법인 곳에서 하나님에 대해 들어본 적 없는 북한 주민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함께 기도하는

장면이 담겼다. 선댄스영화제는 1985년 감독 겸 배우 로버트 레드포드가 설립한 독립영화제로, 전 세계 독립영화와 다큐를 주로 다룬다. 선댄스영화제는 토포도국제영화제(TIFF), 뉴욕영화제(NYFF)와 함께 북미 3대 영화제로 불린다. 영화 ‘비온드 유토피아’는 코로나19 직전 탈북민 가족의 구출 과정을 담고 있다. 가족 중 일부가 탈북했다는 이유로,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역으로 사실상 사형선고와 같은 유배 명령을 받은 한 가족이 살기 위해 도망쳤다. 무작정 백두산을 넘었고 운 좋게

중국 농부에 발견돼 갈렙선교회(대표 김성은 목사) 구출까지 이어진다. 이 가족은 일제 강점기에 태어나 한국전쟁을 겪고 북한의 3대 독재 정권을 경험한 80대 노모와 딸, 사위, 그리고 어린 두 자녀 등 총 5명이다. 영화는 19~29일 미국 유타주 파크시티에서 열린 이번 영화제 기간 중 총 7회 상영했다. 갈렙선교회 대표 김성은 목사와 사역자, 구조받은 탈북민 가족이 시사회에 참석해 관객과 대화를 나눴다. 22일 유타주 솔트레이크 장로교회에서 열린 탈북민 가족과 함께하는 연합예배에도 참석했다. 갈렙선교회는 지난 24년간 1000명 넘는 탈북민 구출을 도왔다. 또 그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 탈북민 공동체를 운영하고 있는 선교단체다. 북한의 실상을 알리기 위해 북한 내부에서 촬영된 영상을 세계 유수 언론사와 공유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복음 통일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갈렙선교회 대표 김성은 목사는 좀 더 구체적인 북한의 실상과 탈북민들의 고통이 국제 사회에 알려지기를 바란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특히 하나님의 사랑의 선한 영향력을 통해 북한의 복음 통일에 밑거름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피종진 목사 2월 부흥성회



010-5255-7777
GodBless3377@gmail.com

- 총신대학교 56회 동문회 회장
- 연세대학교 총동문회 상임이사
- 서울대학교 총동문회 이사
- 한국뉴욕주립대학교
- 영어 연구원 동문회 회장
- 미국 Philadelphia Faith 대학원 총장 Carl McIntire(D.Min)
- 미국 Henderson Christian University 총장 Henderson Belk(Th.D)

1(수)	고흥 엘리스유망 (원장 김지선 목사) 010-8653-1213	인천 송도사랑교회 (박용배 목사) (032) 832-8290	주관 미국 Knapp Seymour University (총장 Tomas VrumPild)	이사장 홍용표 박사 행정총장 심진구 박사 (Cell 1-213-590-9191)	웅산 은목교회 (이무형 목사) 010-3518-1685
7(화) 오후		행정 서귀향 전도사 010-3764-7517			
8(수) 오전		광명 예수생명교회 (주종순 목사) 010-5514-4802			
8(수) 오후		성민 중앙교회 (강영준 목사) 010-9260-1091			
9(목) 오후		서울 강남반석교회 (강사량 목사) 010-8331-3431			
10(금) 오후		World 기독교 총연합회 (대표교인 피종진 목사 이사장 정진희 목사) 010-7567-8291			
11(토) 오후					
13(월)~16(목)	진안군 임마누엘 냉천수양관 (원장 이공순 목사 010-8623-6391)	행정 부목사 박복주 목사 010-4132-1191			
16(목) 오후		오산리 최자실기념 금식기도원 (원장 김원철 목사)			
		주최 한국기독교 부흥사단회 총연합회			
		(대표총재 피종진 목사 주비위원장 장사무열 목사) 010-7733-9106			
17(금) 오후		서울 위대한약속교회 (임미향 목사) 010-6201-8374			
18(토) 오후		세계문화예술원림픽 대강당 주최 (사) 세계문화예술총연합회 (이사장 한창석 목사) 010-3927-0691			
19(주)~22(수)	전남 무안 중앙교회 (안창남 목사) 010-2471-6266	오산리 최자실기념 금식기도원 (원장 김원철 목사) 주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배용신 목사 주비위원장 김동근 목사 010-2358-9232)			
24(목) 오전		서울 강남반석교회 (원장 강사량 목사) 010-8331-3431			
24(목) 오후		인천 꿈이 있는 교회 (김용희 목사) 010-7291-0291			
26(주) 오후		Good TV 부흥사합 김용희 대표회장 취임예배			
27(월) 오후		천안 위대한약속교회 (유재민 목사) 010-6352-0691			
28(화) 오전		서울 강남순주교회 (오승준 목사) 010-3942-8434			

대한예수교장로회 www.nasca.or.kr

남서울중앙교회 Tel. 02)3411-9191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40(개포동) Fax. 02)401-7770

www.chpress.net

보다 신속하고 빠른
그리스도의 메신저가 되겠습니다.

The Korean Christian Press
미주크리스천신문

교회선교의 선순환 (virtuous cycle) (26)

조용중 선교사
(KWMC 사무총장, Ph.D)



민족 고유 명절을 지나치는 나그네

올해의 구정 명절 기간에 선교사들을 섬기기 위해 방문한 브라질의 상파울에서 보냈다. 구정 전날 저녁 한국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였다. 눈 여겨 보니 떡국이 메뉴에 있었다. 주위를 살펴보았더니 대부분 한국사람들이지만 누구도 떡국을 시키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았다. 우리 일행도 떡국을 시키지 않고 다른 음식을 먹었다. 그 시간이 한국은 이미 구정이었다. 다음날은 주일이고, 한국의 구정이었다. 교회에서 어느 누구도 “떡국 드셨나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일상적인 인사도 하는 사람들이 없었다. 아니 구정이라는 개념이 묻어나는 곳은 아무 곳에도 없었다. 2세들이 한국어를 아주 잘하여, 한국어 예배에 참석하는 모습에 감동을 받은 교회였지만 고국의 정서를 잊고 살아가는 철저한 나그네의 삶을 보여주는 모습이었다. 우리들은 나그네의 삶을 새로운 각도에서 조명하고 해석하고 살아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헛된 꿈을 좇아 신기루를 바라보며 살게 되고 보람된 삶을 살아갈 수 없다.

나그네의 삶은 우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다. 초대 교회의 핍박을 받던 어려운 시기에 베드로 사도는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진 나그네인 디아스포라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신 일들에 대하여 짧은 문장에서 많은 것을 알려주고 있다 (벧전 1:1-2). 흩어진 나그네를 먼저 택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말해주다. 미리 안다는 것은 단순히 사실을 예견하고 알고 있다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 어떤 학자들은 미리 사랑하심이라고 표현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렇다. 미리 사랑하실 만큼 흩어진 나그네가

된 사람을 아신다는 것이다. 나그네의 일거수일투족 삶의 여정을 아신다는 말이다. 우연히 흘러 나그네의 삶을 살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 가운데 나그네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다. 당시 유대인들은 핍박을 피하려고 항 이스라엘 땅을 떠나야 했던 사람들이었다. 비자발적으로 어딘 가로 떠나야하는 난민의 신세가 된 것이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누구의 삶도 그냥 쓸모없이 버려두지 않으신 분이시다. 그들이 나그네가 됨을 미리 아시고 사랑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성령님은 나그네의 삶을 기록하게 하시는 분이시

다. 나그네의 노력으로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성령의 기록하게 하심이라고 말한다. 성령님의 도우미 없이는 누구도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전적인 은혜를 말하고 있다. 나그네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고 그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함을 받았다고 말한다.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며 십자가의 보혈때문에 변화된 삶을 살아가도록 택함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택함받은 나그네는 특별한 사람들이다. 브라질의 한인 이민역사는 조금 특별하다. 군사편찬위원회에서 발간한 중남미 한인의 역사 편에서는 브라질의 이민 역사를 5단계로 이루어졌다고 분석한다. 제1차는 1910년부터 1956년에 이르는 전이민단계로서 일본 국적으로 일본 이민자들과 함께 들어간 숫자 불명의 이민자들과 한국전쟁 이

후 반공포로서 제삼국인 브라질을 선택한 55인들이다. 제2차는 1961년부터 1962년의 준이민단계인데 이 때에 공식 이민의 문을 여는 시기이다. 브라질 한인 이민의 공식 역사를 시작하도록 도운 김수조라는 인물이 있는데 그는 일본인으로 브라질에 이민을 가서 정착하였다. 그는 세계군인사격 대회에 참가하였다가 사고를 당한 정인규 대령의 기사를 읽고 리우데자네이루로 그를 찾아가 브라질 이민의 문을 열게 된 인연을 만든 사람이다. 제3차는 1963년부터 1971년까지의 기간 동안 공식이민단계이다. 1962년 12월 18일 부산항

을 떠나 1963년 2월 12일 브라질 산토스항에 도착한 103명의 한인들에 의해 공식적인 이민 역사가 시작되었다. 대한민국 정부가 1962년 해외이주법을 제정하고 최초의 공식 이민을 브라질로 허락한 것이다. 이 시기는 두 그룹으로 나뉘어 있는데 1963년부터 1966년까지 5차례에 걸쳐 1천300여명의 농업 이민자가 브라질로 들어와 초기에 농민으로서 브라질 전 농촌 지역에 농장들을 세워 경영하였으나 실패하고 이들 중 90%가 농업 이민 계약 기간인 3년이 채 지나기 전인 1966년 상파울로 이주하였던 그룹이다. 이로 인하여 브라질 정부가 농업 이민을 금지하자 1971년에는 1천400여명의 기술 이민자가 비행기로 한국해외개발공사를 통하여 이주 하였다. 이들 대부분은 대학 졸업장을 갖춘 고학력의 중산층들이거나 남대문이나 동대문에서 의류업에 종사한 경

험이 있던 상인들이었다. 1980년도가 되면서 브라질의 의류 산업을 주도하는 세력으로 성장하였다. 이들은 후에 미국으로 진출하여 미국의 의류업계에 큰 영향을 끼치기도 하였다. 2013년도 경에는 브라질 중상층 여성의류업계의 50% 이상을 차지할 만큼 성장하기도 하였다. 제4단계는 1972년부터 80년에 이르는 불법 이민 단계이다. 브라질 정부의 이민 억제 정책이 있었지만 1960년대 말 서독에서 광부나 간호사로 일하였던 사람이 결혼하여 미국으로 이민을 하였는데 일부가 브라질을 선택하여 들어왔고, 베트남에서 계약 노동자들도 계약이 끝나면서 미국이나 브라질로 들어갔다. 1970년대 초에는 태권도 사범들이 미국이나 브라질로 진출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미국을 최종 목적지로 삼은 많은 사람들이 파라과이와 볼리비아를 경유지로 삼아 브라질을 찾았다. 제5단계는 1980년부터 1990년에 이르는 연쇄 이민 단계이다. 이 시기에는 가족이나 친지 초청으로 꾸준히 유입되어 상파울루의 이골리마성, 봉헤찌토와 브라스 구역에 집결하

브라질을 떠난 사람들로 인하여 교회 2-3개가 합하기도 하고, 폐쇄하기도 하는 소식들에 만나는 한인들의 모습은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한 모습과 활기를 잃은 듯 보였다. 그러나 지금까지 많은 단계를 거치면서 시작되고 유지된 한인들의 브라질 이민은 많은 가능성과 잠재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된다. 그에 대해서는 군사편찬위원회가 발간한 중남미한인의 역사편을 보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많은 한인 이민 사회의 중심에는 교회가 있었다. 브라질에서도 교회는 이민 사회의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앞장 서 왔다. 이제 성도들은 경제적, 사회적으로 브라질 사회에 동화할 뿐 아니라 주도적으로 선택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교회 공동체로 세워 가야 할 것이다. 또한 한인 디아스포라의 네트워크 확장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더 잘 섬겨가도록 우리들은 브라질에 대해서 더 잘 알아야 할 것이다. 저자도 브라질에 대한 선입견이 실제 브라질과 많이 다르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다. 막연한 브라질에 대한 선교적 선입견은 아마존 정글

이민자들이 경제적 차이로 말미암아 북미주로 이주를 하는 정거장 정도로 인식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는 브라질교회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세계선교를 위해서 귀한 파트너로 여기며 함께하는 자세를 가지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브라질 교회와 더욱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사역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할 것이다. 브라질은 단순한 선교지가 아니다. 브라질의 교회는 1960년도에만 해도 약 3%의 복음주의 성도들이 있었으나 2010년도에는 26%에 달하는 도약을 하였다. 인구의 약 5000만명이 복음주의 성도들 이라는 것이다. 브라질교회는 약 50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였다. 브라질 교회는 전 세계로 파송하는 글로벌선교와 국내로 유입된 디아스포라를 대상으로 하는 선교와 국내에 남은 미전도종족 확장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더 잘 섬겨가도록 우리들은 브라질에 대해서 더 잘 알아야 할 것이다. 저자도 브라질에 대한 선입견이 실제 브라질과 많이 다르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다. 막연한 브라질에 대한 선교적 선입견은 아마존 정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먼저 택한 흩어진 나그네 나그네의 일거수일투족 삶의 여정을 먼저 아신다

여 의류업 분야의 생산, 도매, 유통에 이르기까지 경제적으로 안정과 번성을 누렸던 시기이다. 1990년대 이후는 브라질의 시장 개방과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으로 인하여 한인사회 내에서 특히 남성들의 직업의 다양화와 경제적 차이로 인한 계층화를 가속화 시켰다고 한다. 한국의 기업들이 진출하고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길들이 열리기 시작한 것이다. 그 이후 1999년 1월 브라질의 재정 위기로 한인 사회 역시 요동치기 시작하면서 많은 한인들이 미국행으로 이어졌다. 브라질에 사는 한인들은 특유의 근면함, 교육열 등으로 인하여 브라질 사회에서 경제적인 안정과 함께 이민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다. 최근에는 팬데믹의 영향으로 5만여명의 브라질의 한인 이민 사회가 줄어들고 있다고 한다. 그동안 보이지 못하던 교회들과 아예

을 누비는 선교사의 모습이다. 즉, 브라질이 선교지로서 우리들에게 보인 것은 원시문명 시대에 살고 있는 토착민정도로 우리가 가서 도와주어야 할 대상으로 봐 왔다는 것이다. 그런데 브라질 사람들 가운데 76% 사람들이 세계에서 브라질이 현재보다 존중을 받아왔다. 브라질을 조금만 더 잘 알아본다면 그 말이 뜻하는 바를 이해하게 된다. 브라질은 남미의 절반에 달하는 국토와 인구를 가진 대국이다. 세계에서 7번째 큰 경제대국이다. 2억이 넘는 인구가 3,228 평방 마일에 이르는 면적은 전세계에서 5번째이다. 알라스카와 하와이를 제외한 미국의 본토보다 조금 더 큰 땅이 브라질이다. 현실에 비해 비교적 작게 생각되거나 적은 영향력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온 것은 일반인들이 무지하였기 때문이며, 한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열려 있는 기회이며 이들을 통하여 그들이 고국 친척들과 자민족을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각 분야에서 한인선교사들과 한인교회들은 어떻게 협력할 수 있을 것인지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할 것이다. 브라질 교회와 선교운동을 함께 하여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한인 선교사들은 경제적 사회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시작한다. 그들을 위한 교회를 개척하고 발전시켜 나가기도 하고, 빈곤층을 위한 교육사업을 진행하기도 한다. 한인 선교사들 가운데는 브라질인들을 훈련시키는 신학교육에 중점을 둔 사역자들이 있고, 브라질인들을 훈련하여 선교사로 내보내는 사역에 중점을 둔 선교사들도 있다. 브라질교회의 선교운동에 함께 하는 지파선교회는 브라질 목회자들이 중심이 된 현지 이사회를 구성하고 파송선교회로서의 기능을 감당하고 있다. <15면으로 계속>

One Story 21세기 말씀의 삶

25강. 광야 38년, 늦봄 그리고 도피성 / (민수기 20-36장) (1)

민수기 19장과 20장 사이에 시간이 38년이 흘러버렸습니다. 성경은 그 시간들에 대해 침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행하신 일이 많지만(요 21:25) 성경은 오직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데(요 20:30,31) 집중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모세의 동역자였던 미리암이 죽고(민 20:1) 아론도 곧 죽습니다(민 20:28). 이제 출애굽 1세대에서 20살 이상의 남자는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는 없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당시 20살 미만 이었고 광야 40여 년의 시간을 지나면서 성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이전 세대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징계로 죽어 나가는 모습을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그럼 무엇인가

가 달라야 합니다. 그런데 마치 출애굽 1세대가 그대로 살아있는 듯 이들도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과 후의 차이는 '신분의 변화'이지 '본질의 변화'가 아닙니다. 여전히 '죄인'이고 '죄의 덫'에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죄인인 자를 '하나님의 의'로 덮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성화는 우리의 본질이 점점 더 나아지는 모습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었음에도 여전히 변화가 없는 우리의 죄된 본성을 인식하고 더욱 하나님께로 가까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가는 것을 말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제 광야 2세대입니다. 그들이 마실 물이 없자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와 다투며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와 화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좋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번에도 모세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라고 하십니다. 40여 년 전에는 '반석을 쳐서' 물을 얻으라 하셨는데(출 17:5,6) 이번에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하십니다(민 20:7,8). 그런데 모세가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어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을 써서 에돔 땅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청합니다. 발으로도 포도 원으로도 지나지 않고 우물물도 마시지 않겠다고 합니다(민 20:17). 그러나 에돔 왕은 허락하지 않을 뿐 아니라 백성과 함께 강한 손으로 막습니다(민 20:20). 하나님은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지 않으셨습니다(신 2:5). 그러나 형제 나라였음에도 도움을 주지 않고 이후 남 유다의 멸망을 기뻐하며 즐거워했던 에돔은 결국 하나님의 때에 심판을 받습니다(욘 1:10-15).

민 21:1-3) 에돔 땅을 우회하며 다시 하나님과 모세를 일망합니다. 그들의 지치지도 끊이지도 않는 원망의 주제는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민 21:5)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시고 백성이 다시 회개하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고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고 하십니다(민 21:6-8). 그래서 모세는 늦으로 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았고 뱀에게 물린 자들 가운데 늦뱀을 쳐다본 자들은 살았습니다(민 21:9). 여기서는 이렇게 끝나는 이 불뱀과 늦뱀 사건에 우리는 2가지를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연 불뱀에게 물린 사람 중에 '몇 사람이나 장대에 달린 늦뱀을 보았을까?'하는 것입니다. 꽤 많은 사람들은 늦뱀보다는 그들의 '상식'과 '지식'을 사용하다 죽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상을 만드는데 천재적인 인간은 이 늦뱀을 앞으로 700여년이 지난 히스기야 왕 때까지 가지고 있다가 히스기야 왕에 의해 부숴집니다(왕하 18:4). 이것이 바로 죄인된 인간의 '우상숭배'이고 '악'입니다. hfamillyfa@gmail.com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

불뱀 그리고 늦뱀

이스라엘 백성은 잠시 내전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승리도 거두지만

매일가정예배

김덕수 목사(하늘소망교회/ 생터사역원 LA지부장)
dsukim@gmail.com

월 사도적 권위 (롬 1:1) 찬 344장

새해를 사도의 가르침으로 시작할 때 아름다운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신자는 사도의 터 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엡 2:20)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은 먼저 자신의 복음이 사도적 권위 위에 세워졌음을 어떻게 말합니까?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노예를 살아있는 재산 목록으로 다루는 때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됨을 자기 신분이 라 합니다. 예수를 대적하던 그가 예수의 종이 된 것은 성령으로 믿고 중생했기 때문입니다. 중생한 사람은 예수와 연합하여 모든 일에 주종관계로 바꾸어집니다. 둘째, 창세 전, 태정

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의 직분이 창세 전 삼위일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된 사실을 깨달은 바울은 그 기원을 자신의 생각이나 인간적 의논에 두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왔음을 밝힙니다. 그리고 그는 영원한 복음을 위하여 부름받은 사도였습니다. 이것은 그의 복음이 창세 전에 준비된 것을 알았다는 뜻입니다. 사도는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도록 부름받은 그 사명에 자기 생애를 걸었습니다. 사도적 복음에 나의 생애를 항해하는 새해가 됩시다.

화 복음이란? (롬1:1-4) 찬 271장

사도가 생명보다 더 귀한 것으로 여긴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첫째, 그것은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그리스도와 그에 관한 소식입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가 여러 상징과 모형으로 증거한 것은 마지막 때, 신약시대에 그 아들로 더 확실하게 나타난 것입니다. (히1:1-2) 그러므로 복음을 알면 깊고, 높고, 넓은 증거를 가졌기에 가장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둘째, 그는 참 인간으로 오신 분이셨습니다. 성자는 기이한 방법으로 오실 필요가 없이 다윗의 혈통 곧, 참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사셨고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만이 자기 백성을 위한 중보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셋째, 그는 부활의 능력을 가진 분이셨습니다. 사도는 그리스도의 신성의 최대의 증거를 그의 부활 사건에 두었습니다. 그의 부활은 그에게 속한 교회의 부활이기에 사도는 부활의 복음을 전하기 원했습니다. 한 해의 항해도 복음의 능력 곧, 부활의 능력이 모든 생활에 나타나는 목표로 살아갑시다.

수 은혜와 평강 (롬 1:5-7) 찬 97장

복음으로 인해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는 사도는 로마 교인들을 향해 그리스도의 축원을 빌 수 있었습니다. 첫째, 그 복음은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은 자로 제한되었습니다. 이것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정을 받은 자들 곧, 교회를 가리킵니다. 여기에 포함된 나는 한 해의 은혜와 평강이 보장된 사람입니다. 둘째,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질 복입니다. 로마인 중에 택정받은 사람들처럼 얼마든지 부르시는

그의 부름에 응답하도록 복음 전파를 위해 자신을 바치는 삶이 될 때 가장 복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셋째, 그리스도는 은혜와 평강의 원천이십니다. 은혜는 그리스도가 거저 주신 구원의 선물이고 평강은 그 후에 누리지는 은택을 가리킵니다. 먼저 은혜가 있고 평강은 따라옵니다. 은혜없이 평강이 없으며, 평강없는 은혜는 가짜입니다. 새해에 어디에 있는지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생활을 이루어갑시다.

목 바울의 감사 이유 (롬 1:8-10) 찬 474장

복음을 깨달은 바울은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이 성취되는 것을 기뻐하며 감사하였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이 증거됨을 감사했습니다. (8) 로마 교인들뿐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되는 복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소수 세력에 불과한 그들에게 증거된 복음은 장차 온 세상 속에 강하게 증거됨을 본 것입니다. 은혜의 복음을 아는 사람은 그 하나때문에 항상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선한 양심으로 감사했습니다. (9) 인위적

인 방법이나 일시적인 기회로 그 아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칠 수 있었던 것은 착한 양심으로 주를 섬겼기 때문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것을 감사했습니다. (10) 로마에 있는 교회를 방문하는 것조차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 것은 하나님의 뜻만이 가장 복되다는 확신에서 나온 것입니다. 새해의 모든 계획이 하나님의 뜻 안에 되기를 구하는 삶이 복됩니다. 그 길을 감시다.

금 바울의 방문 목적 (롬 1:11-12) 찬 178장

로마 교회를 심방함은 세 가지 목적을 가졌습니다. 첫째, 신령한 은사를 공급하는 데 있습니다. (11) 이미 복음을 받은 로마 교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또 다른 것이 아니고 복음을 깊이 깨닫게 하는 말씀의 은혜입니다. 신령한 은사는 복음의 깨달음입니다. 로마서에 설명한 복음의 내용을 잘 깨달을 때 우리는 새로운 은혜를 받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전할 복음입니다. 둘째, 그들의 믿음을 강하게 함이 목적이었습니다. (11) 강함

은 언제나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달라붙을 때 생기는 열매이기 때문에 자신을 복음에 헌신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입니다. 셋째, 믿음의 위로를 얻게 하려는데 있습니다. (12) 꺾박받는 로마 교인에게 필요한 것은 하늘의 위로를 받는 일임을 잘 안 바울은 말씀의 위로를 나누기 위해 만나기 원했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함으로 이 위로의 능력으로 승리합니다.

토 복음의 빛을 진 신자 (롬 1:13-14) 찬 355장

보통 빛은 무거우나 복음의 빛은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왜 그런가요? 첫째, 복음은 그리스도이며 그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4) 복음이란 그리스도 곧, 그의 말씀인 성경을 아는 자는 그 귀중성 때문에 이웃에게 알리고 싶은 마음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자원하는 마음에서 생기는 것은 그 놀라운 효력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가장 위대한 소식을 전하는 전령이 되었습니다. 둘째, 복음은 죄를 해결할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13) 누구나 믿어야 할 복음

인 것은 죄 곧,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입니다. 셋째, 복음은 모든 민족에게 필요한 기쁜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14) 유대인 우월 사상에 떨어진 유대주의와 인본주의 뿌리인 헬라 철학을 능가하는 그의 복음은 온 세상을 어둠에서 빛으로, 혼란에서 질서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것은 바울로 시작된 것이 아니고 일찍이 아브라함(창 12:3)을 위시한 구약 선지자들이 전한 것입니다. 복음의 빛진 자로 살아갑시다.

교회음악 이야기(28)



윤임상 교수
(월드미션대학교대학원)

카를 보벌그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요즘 미국 서부지역 LA의 대지는 예년에 볼 수 없던 푸르름의 풍요를 만끽하고 있습니다. 많은 양의 비가 내려 땅속으로 스며들어 만물이 싹을 틔우고 생명을 만들어 온 대지가 푸르름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모습을 우리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이 마치 하나님의 영광이 푸른 소망으로 가득 채운 채 우리에게 다가오는 듯합니다. 이것에 반응하여 필자는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 세계를 하나의 찬송으로 고백하고 싶은 충동이 생깁니다. 이때 문득 떠오르는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How Great Thou Art)"입니다.

이 찬송가는 스웨덴 국회의원(1912-1931)이었던 작곡가이자 편집자인 카를 보벌그(Carl Boberg, 1859-1940)에 의해 1885년 남부 스웨덴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이 마침내 미국 해안에 도달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불려지기 전에 여러 국가에서 이미 알려졌습니다. 이 찬송가가 미국 내에서 대중화가 된 것은 빌리 그레함(Billy Graham, 1918-2018)의 십자군 기간 동안 가스펠 가수 조지 베버리 쉐아(George Beverly Shea, 1909-2013)와 클립 바로우(Clip Barrows, 1923-2016)에 의해 불려지게 되면서였습니다. 지난 2001년 미국의 Christianity Today 매거진의 설문 조사와 2019년 Songs Of Praise의 전국 여론 조사에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 목록에서 "Amazing Grace"에 이어 2위를 차지할 만큼 크리스천들에게 많이 불려지는 찬송가입니다.

찬송 시가 만들어지게 된 것을 찬송작가인 얼빙 에릭슨 목사(J. Irving Erickson 1914-1992)가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습니다. "1885년 어느 여름에 보벌그가 몇몇 친구들과 함께 크로노버그(Kronberg)에 있는 교회에서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리고 돌아오는 길에서 시작합니다. 갑자기 하늘에 먹구름이 가득차더니 천둥소리와 함께 하늘을 가로질러 번쩍이는 번개를 치며 거센 바람과 함께 우박이 쏟아집니다. 그리곤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폭풍이 그치더니 맑은 하늘 가운데 아름다운 무지개가 선명하게 나타나는 환희의 장면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 집에 도착한 보벌그는 몬스테라스(Mönsterås)만 바다 쪽을 향해 창문을 열고 있는데 교회 종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그리고 숲에서는 개똥지빠귀(Dusky Thrush)의 노래소리가 어울려 하모니를 이루며 펼쳐지는 전원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 속에서 시상을 떠 올려 'O Store Gud'(How Great Thou Art)라는 제목의 시를 쓰게 되었습니다." 1886년 이 시는 스웨덴 민요에 붙여 찬송하게 되었습니다. 보벌그의 증조카인 버드 보벌그(Bud Boberg)에 따르면 "이 찬양에 대한 아버지의 이야기는 시편 8편을 의역한 것으로 침례교와 선교 친구들이 박해를 받았던 1800년대 후반 스웨덴의 '지하 교

회'에서 사용되었다고 전언합니다.

1907년에 찬송작가 멘프레드 반 글렌(Manfired von Glehn, 1867-1924)이 이 찬송을 독일어로 번역했습니다. 이어 5년 후에 러시아 목사인 이반 프로카노프(Ivan Prokhanoff (1865-1935)가 러시아어로 각색했습니다. 그리고 1920년대 초 영국의 스튜어트 하인(Stuart K. Hine, 1899-1989) 목사 부부가 폴란드 선교사로 갔다가 그곳에서 그들은 보벌그의 노래 "O Store Gud"의 러시아어 버전을 배웠습니다. 스튜어트 선교사는 그것을 영어 가사로 번역하고 스웨덴 멜로디를 직접 편곡하여 처음 영어 찬송 "How Great Thou Art"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찬양하는 영어버전은 1949년에 출판되어 영국, 아프리카, 인도, 미국에 빠르게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부르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송이 된 것입니다. 네 절로 만들어진 이 찬송의 첫 절은 창세기 처음 세 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시작을 간략하게 요약하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2절에서는 성령 하나님이 물 위에 운행하심을 묘사하며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어 3절에서 요한복음 1장에서 3장까지 나타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수난을 통한 속죄의 사건을 표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서 천국의 소망을 가득히 가슴에 담아 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보벌그가 이 찬송 시를 쓰는데 소재가 되었던 시편 8편은 다윗이 쓴 시로 자신의 현실 세계를 보면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였던지 그것을 하나의 시로 만들어 찬양하고 있습니다. 시편 8: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보벌그는 일시적으로 나타난 자연현상을 바라보며 다윗의 이 찬양을 소재 삼아 천지를 창조하신 성삼위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였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살고있는 이 LA의 메말랐던 대지를 축축한 단비로 적셔 주시고 그것으로 생명을 불려일으켜 온 세상을 푸른 초장으로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기적을 보며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 조나단 에드워드(Jonathan Edwards, 1703-1758)가 주장하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일깨우게 합니다. 우리가 매 순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우리 자신으로부터 떠나서 하나님께 드리고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하며, 행동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피조물 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지속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말입니다.

iyoon@wmu.edu



"사랑은 가도 사랑은 남습니다"

가슴으로 쓴 이야기는 세월이 가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열심히 한 생애를 살아온 당신이 남긴 사랑의 이야기들

기억은 추억이 되어 더욱 소중한입니다

최고의 예를 드리는 하늘 가족, 중앙 장의사

머리카락 한올까지 마지막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 정성속에 함께 보낸 31년 Since 1988, 최초의 한인 공인장례사

당신의 이야기 ... 사랑의 꽃이 됩니다

모든지역 - 대형 파랑장 안내

Central Funeral Home: BongHo Ha F.D. NJ LIC 4569 | Gina Chong F.D. NJ LIC. 4504 | John Chong F.D. NJ LIC 5079

NY: 샌프란시스코 162-14 Sanford Ave., Flushing, NY NJ: 워싱턴 809 Broad Ave., Ridgefield, NJ NJ: 잉글우드 129 Engle St, Englewood, NJ

장례사전계획 | 장례식 코디네이터 | 성직자 초빙 | 묘지구입 상담 | 운구 한국소환 | 이장 | 기타 장례의 모든 것

뉴욕 | 718. 353.2424 뉴저지 | 201.945. 2009

선교 편지

멕시코

▶ 멕시코 교도소들에 담요 전달

2004년 1월부터 멕시코에서 여러 방법으로 복음 전파를 위해 기도하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교도소 사역"입니다. 이번에는 오로지 교도소 사역 소식만 쓰겠습니다.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로이지만 멕시코에서의 교도소 사역도 어렵지만 그래도 허락하에 멕시코 동역자들과 함께 안에 들어가서 저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동역자들과 함께 들어가서 교도소 내의 정해진 곳에서 꾸준한 찬양과 말씀 선포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결신자들에게 세례를 주기도 합니다. 제게 오는 단기선교팀들은 멕시코에 올 때 미리 드라마를 준비해오도록 해서 이 안에서 공연하기도 했습니다. 치과 닥터도, 베넬교회 안경팀도, 여러 태권도팀도, 합창단과 다른 공연팀들도 안내하여 좋은 반응을 얻기도 했습니다. 저는 주로 영화 상영을 합니다. 좋은 기독교 영화들이 저들의 믿음 성장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교도소 집회에 갈 때마다 치약과 칫솔, 비누, 화장지, 면도기들을 가지고 갑니다.

영화 상영할 때에는 토르타(Torta)라는 식빵도 만들어서 영화 상영 중간이나 영화 상영 후에 나누어 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저들의 신앙을 돕다가 겨울에는 담요를 전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겨울에도 벌써 몇 번 전달하였습니다. 왜 매년 하나요? 교도소마다 몇천 명씩이 있는데 저들 전체에게 나누어 줄 만큼 모금이 되지 않고, 매해 모금이 되는 대로 몇백 장씩 구매하여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요 한 장으로는 추위를 커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교도소 사역 중 겨울철에는 "H" 교도소에 더 집중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H-1", "H-2", "H-3" 이렇게 3개의 교도소가 있습니다. 3명의 소장이 있고, 직원들도 다르고, 모든 행정도 다릅니다. 이 지역은 겨울철에 유난히 더 춥습니다. 겨울철에는 눈이 내리기도 합니다. 이번 겨울에도 상당량의 눈이 내리기도 하였습니다. 겨울철에 너무 추워서 그런지 이 교도소에는 여자 재소자들은 없습니다.

최근에는 "H-1" 교도소에서 사역하였습니다. 추웠습니다. 몹시 추웠습니다. 교도소에 들어오기 전 차 외부온도가 섭씨 0도였습니다. 밤에는 정말이지 엄청 추울 것입니다. 들어가서 영화 상영을 마



친 후 담요 전달을 위해 띄엄 띄엄 떨어져 있는 여러 동의 건물이 있는데 한참을 걸어간 후 문제 많은 한 동에 도착하여 좁디좁은 계단을 빙빙 돌아 3층에 올라가서 각 방의 재소자들에게 담요들과 빵모자들과 생필품들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여러 해 전에는 겨울철에 나이 든 재소자들이 빵모자를 쓰고 있어서 '재소자들이 웬 빵모자까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도 언젠가부터 머리가 자주 없어져서 저 안에 들어가면 머리가 추우니 빵모자의 효력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머리가 빠지지 않았다면 빵모자의 중요성

을 몰랐을 것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추운 방에서 재소자들이 여러 달의 한겨울을 보내게 됩니다. 그것이 어디 한두 해만이었습니까? 세 해, 네 해, 다섯 해... 10년, 15년 또는 20년을 지내게 됩니다. 몇 동을 돌며 담요들을 나누어 주는데 모두들 너무나 고마워하고 얼굴이 퍼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럴 때마다 좀 더 열심히 모금해서 더 많은 담요를 구매해오지 못한 것이 마음에 걸리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교도소 사역 소식만 전합니다.
최재민 선교사: 1-213-675-7575 (미국 & 멕시코 공용)

세계 곳곳에 있는 소수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 국가명
동남아시아 M국

▲ 종족명
삼베 종족

▲ 인구
약 52,000명

▲ 종교
기독교 80%, 이슬람 10%, 토속종교 10%

▲ 기타
산지에 사는 종족이고 음악과 춤이 삶의 전반을 이룸

▲ 프로젝트 소개
1970년대에 부흥을 경험한 종족이며, 많은 찬송가를 자체 번역하여 예배에 왕성히 사용한다. 구약 번역은 삼베족의 요청으로 시작되었고, 지속적으로 구약 번역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프로젝트 진행
구약 번역이 주 사역이며, 삼베어 찬양집은 이미 많은 마을에서 사용 중이다. 구약 14권을 번역했으며 현직인 목사님 두 분과 구약 완역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 기도제목
1. 번역된 성경이 각 마을마다 왕성하게 알려지며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이 일어나도록
2. 다음 세대들이 부흥을 경험한 부모 세대의 믿음의 유산을 잘 이어받아, 개인의 삶과 공동체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분명히 나타나도록
3. 함께 번역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팀원 모두가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을 전심으로 경외함이 공동체로 흘러가도록

(GBT 성경번역선교회)

민족 고유 명절을 지나치는 나그네..

(13면에서 계속)
이들은 아프리카에서 같은 포르투갈어를 사용하는 모잠비크, 기니비사우 등 포어권의 국가에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있다. 바울 선교회는 훈련받은 브라질인들을 바울선교사로 파송하고 있다. 아직은 한인선교사들과 함께 선교사 파송을 하는 숫자는 많지 않지만, 브라질 교회들이 앞서서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도록 꿈을 나누고 격려하여 브라질 선교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브라질 교회의 가장 큰 세력으로 오순절 계열의 교회들이 활발하게 사역하며 증가하는 추세로 있다. 이들은 한국의 오순절교회에 대한 존경심을 대부분 가지고 있다. 이런 영향으로 인하여 한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가 있다. 또

한 브라질 장로교회도 한국 장로교의 제자후련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한국교회의 좋은 부흥의 경험을 가지고 파송된 선교사들은 겸손하게 한국교회가 제공할 수 있는 경험들을 함께 나누고 선교사 훈련, 파송, 케어의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

브라질의 이민 역사가 깊어 가는 만큼 브라질 출신의 한인 사역자들을 세우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브라질에는 한인 선교사의 자녀들(MK)이나 목회자 자녀들(PK) 가운데 사역에 뛰어들 비교적 젊은 사역자들이 80여명에 달한다고 한다. 이들은 부모세대보다 훨씬 더 언어와 문화에 익숙한 브라질 전문가들이 되어있거나 될 수 있는 세대들이다. 이들에게 꿈을 심어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기회를 제공

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젊은 세대들 가운데 스스로 잘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지만, 그들을 1세대들과 함께 만날 수 있는 의도적 기회를 만들어 감으로 인하여 자연스러운 디아스포라 한인들의 리더십 계승이 이루어 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나그네는 특별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데 그 소망은 살아있는 소망이다. 현실 세계에서 쉽게 잊어버리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너무 가까이 도사리고 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다 보면 이 세상 눈에 보이는 것보다 너머에 있는 무엇인가에 대한 갈망이 자꾸 떠오르게 된다. 그렇기에 창조자를 찾고, 세상을 주관하는 분을 찾게 되고, 나그네의 삶이 전부 아닌 참다운 고향을 바라보게 된다. 그때에 십자가에서 흘

린 보혈과 죽음을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도 말미암아 먼 미래의 막연한 소망보다 더 크고 현재를 살아갈 수 있는 죽음의 권세를 이긴 산소망을 가지게 하기 때문에 나그네는 복된 것이다. 나그네의 삶을 힘들게 하는 어떤 위협이나 죽음이 지도 뛰어넘을 수 있는 소망이다.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다 하더라도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잇게 된 사람들로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 모두가 고향 땅에 살고 있어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신앙의 나그네들이라고 말한다. 지혜로운 자는 구정떡국을 지나친 나그네로 살아가더라도 우리에게 산소망과 유업을 잇게 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힘찬 발걸음을 내딛어야 할 것이다.

dr.yongcho@gmail.com



<p>갈보라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용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오후예배: 오후 2:0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세례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p> <p>Tel: (850) 423-9700 Cel: (213) 703-9961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p>	<p>다민족교회 담임목사: 홍귀표 주일예배: 오전 11:30 주일그리스교계기도회: 오후 1:00 주일학교: 오전 11:30 수요성경공부: 기도회: 오후 8:00 다민족화양전도: 매주(목)오후 4:00-7:00</p> <p>Tel: (773) 802-1112 ecross@yehoo.com 6050 W. Touhy Ave. Chicago, IL 60646</p>	<p>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최해근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매일새벽기도회: 오전 6:00</p> <p>Tel: (610) 222-0691, 267-471-7777, Fax: (610) 222-0692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446</p>	<p>벅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인환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 아 베: 오전 10: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p> <p>Tel: (215) 845-0288, Fax: (215) 845-2085 1550 Woodbourne Rd. Levittown, PA 19067</p>	<p>벤틀교회 담임목사: 백선중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15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영 아 베: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세례기도회: 오전 6:00(월-토)</p> <p>Tel: (410) 461-1235, www.bethelchurch.org 3165 St. Johns Lane, Elkctt City, MD 21042</p>	<p>보스톤장로교회 담임목사: 장성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5:3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영 아 베: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세례기도회: 오전 6:00(월-토)</p> <p>Tel: (608) 435-4579, www.bostonkorea.org 2 Main St. Hpkinton, MA 01748</p>
<p>새생명안인교회 담임목사: 정성환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목) 수요예배: 오전 6:00(화/목/토) 구역예배: 각 구역별로 한국 화 교: 오전 10:20(주일)</p> <p>Tel: (850) 423-9700 Cel: (213) 703-9961 5502 Old Bethel Rd. Crestview, FL 32536</p>	<p>알칸사 제자교회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오전예배: 오전 11:30 주일오후예배: 오후 4:0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찬양: 오후 8:00 세례예배: 오전 6:00(월-토)</p> <p>Tel: (501) 920-9049, www.jejes.com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p>	<p>앵커리지제자교회 담임목사: 유재일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 아 베: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00</p> <p>Tel: (907) 344-6446, Fax: (907) 344-3182 8200 Brenwood St. Anch, AK 99518</p>	<p>영생장로교회 담임목사: 백운영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수요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세례기도회: 오전 6:00(월-토)</p> <p>Tel: (215) 845-1512, Fax: (215) 845-9037 706 Wilmer Rd. Hershman, PA 19044</p>	<p>킬린은누리교회 담임목사: 김성환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0:5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토요찬양예배: 오후 8:00 세례예배: 오전 5:30(화-금)</p> <p>Tel: (254) 635-1842(H), (254) 501-4933(C) 1000 E. Veterans Memorial Blvd. Killeen, TX 76541</p>	<p>워싱턴메시아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EM)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세례예배: 오전 5:30(월-토)</p> <p>Tel: (703) 841-4447, www.mpcow.org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p>
<p>타코마 안인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성호 주일 영아예배: 오전 8시 주일 1부 예배: 오전 9시 50분 주일 2부 예배: 오전 11시 주일 찬양예배: 오후 1시 수요예배: 오후 7시 세례기도회: 오전 5시 30분 (화-토)</p> <p>Tel: (253) 536-6675, www.tacomacr.com 9424 S. Yelkoma Ave., Tacoma, WA 98444</p>	<p>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p> <p>■ L.A.: Tel. (323) 665-0009 l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press@gmail.com ■ info@chpress.com</p>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p>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p> <p>■ L.A.: Tel. (323) 665-0009 l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press@gmail.com ■ info@chpress.com</p>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p>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p> <p>■ L.A.: Tel. (323) 665-0009 l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press@gmail.com ■ info@chpress.com</p>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p>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p> <p>■ L.A.: Tel. (323) 665-0009 l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press@gmail.com ■ info@chpress.com</p>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p>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p> <p>■ L.A.: Tel. (323) 665-0009 l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press@gmail.com ■ info@chpress.com</p>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세계한인기독교언론협회 제 8회 독후감 공모전 당선작

우수상 한익승(미국 뉴저지 파라무스 참빛교회)

“예수님이 세상에서 하신 일”

미국으로 이민온지 벌써 23년이 되어간다. 1999년 미국 땅을 처음 밟았을때만 해도 나는 하나님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 한국에 있을 때 가끔씩 성당을 다니거나 아버지를 따라 절에 가기도 했다. 하지만 뉴욕에 도착해서 우리 가족이 교회에 나가니까 그리 오래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으로 우리는 어느 한 교회에 정착하게 되었고 공동체 안에서 믿음과 신앙에 대해 배워나가기 시작했다.

그 당시에 무뚝뚝하였던 우리 아버지는 교회생활에 특히 열심을 내셨다. 식당봉사도 하시고 특송도 하시고 심지어 집에서 가정예배를 인도하기까지 했다. 그리고 아버지 회사 근처에 있던 기독교 서점에서 다른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 테이프를 자주 사오시곤 했다. 나중에 아버지가 출퇴근 운전시간에 전부 들으신 테이프들은 우리 형제들에게 들으라고 권해주셨다. 그때 가장 감명 깊게 들었던 설교가 바로 이재철 목사님의 설교였다. 테이프 박스에 들어있던 녹취본을 얼마나 많이 들쳐들었는지 금새 너털너털해져버린 기억이 난다.

이재철 선생님에 대해 처음 알게 된 것도 이재철 목사님 때문이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진로를 정하지 못해 방황하고 있던 어느 날 나는 우연히 100주년기념교회에서 주최한 양화진 목요강좌를 접하게 되었다. 그 당시에 이재철 선생님이 누구인지는 잘 몰랐지만 “지성과 영성의 대화”라는 제목으로 두 분이 나누는 대화를 보면서 그 분에 대해 조금씩 알아가게 되었다.

매주 한 주제를 놓고 두 분이 깊은 대화를 나누셨다. 자다가 공인하는 두 기독교 지식인들이 주고받는 대화였기에 수준 높은 인문학 세미나를 청강하는 느낌마저 들었다. 대답을 통해서 인문학과 신앙이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해줄수 있음을 깨달았다. 영상이 업로드되는 날을

매주 손꼽아 기다렸다가 저녁 늦게까지 형제들과 같이 영상을 봤던 그 시간들은 정말 즐겁고 행복했다.

이재철 선생님의 다른 강연과 인터뷰를 통해서 그분의 가족사를 배우게 되었고 따님의 오랜 기도에도 의해서 선생님이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셨는지도 알게 되었다. 같은 해 출간되어 기독교 서적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했던 “지성에서 영성으로”는 내가 읽은 이재철 선생님의 첫 번째 책이었다. 그 후로 나는 이재철 선생님을 마음 속으로 깊이 존경하게 되었다. 선생님의 소년같은 특유의 천진난만함, 안경 너머로 보이는 진지하고 예리한 눈빛, 그리고 청산유수처럼 쏟아져 나오는 인문학 지식들은 과연 현대 르네상스인을 방불케 했다. 그리고 그 무렵 나는 하나님을 주신 비전을 따라 학업과 취업 활동에 매진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10년이라는 시간이 또 흘렀다.

몇 달 전 선생님의 부고 소식을 처음 접했을 때 정말 믿기지 않았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 같다. 그리고 나는 그분의 삶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 올해 두란노 출판사에서 출간된 “떡다 듣다 견다”를 읽기로 했다. 이 책은 몇 년 전에 기독교 사회복지 엑스포 주제 콘퍼런스에서 이재철 선생님이 “한국 교회 대사회적 섬김에 대한 평가와 한국 교회 미래를 위한 통찰”이라는 주제로 강연했던 내용을 담고 있다.

책의 내용은 제목대로 크게 3 부분으로 나뉜다. 현대 사회에서 교회가 해야 할 일을 “떡다”, “듣다”, “견다”라는 세 단어로 정리했다. 1부에서 저자는 예수님의 공생애 이야기, 제자들의 이야기, 그리고 구약의 이삭 줍기의 예를 들면서 “떡다”의 참된 의미를 인문학자의 시선으로 다시 풀어낸다. 저자는 말한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먹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나누

어 주신 빵인 그분의 몸과 포도주인 그분의 피를 먹으면, 그것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 우리를 살게 합니다. 영원히 주리지 않고 목마르지 않을 그 생명의 빵을 주는 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82-83쪽)

다원주의와 상대주의로 물든 포스트모더니즘 시대를 살아가면서 개인의 신앙은 점점 더 사적인 영역으로 밀려나게 되었다. 그 결과 기독교인들은 공적인 자리에서 마땅히 발휘해야 할 영향력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하지만 사회에는 여전히 억압받고 억눌린 자들이 존재한다. 예수님은 공생애 기간에 바로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섬기셨다. 그런데 우리는 마음이 급한 나머지 본질적인 것을 잊어버리고 육적인 필요를 당장 채우는데 관심을 쏟는다. 심지어 전도를 하기 위한 방편으로 복지와 관련된 사역을 기획하기도 한다. 하지만 교회는 사람들의 물질적 필요를 채워주는 사회복지 기관이 아니다. 본말이 뒤바뀌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육적인 빵보다 진정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영적인 빵을 먼저 구해야 한다고 저자는 말한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생명을 전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먹고 죽을 육적인 빵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는 영적인 빵을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다.

2부에서 “떡다”는 곧 “듣다”로 연결된다. 하나님의 양식을 한 번 먹었다면, 그리고 그 맛을 알았다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떡다”가 예수님을 처음 영접하여 그분과 하나되는 순간을 상징한다면, “듣다”는 인격의 변화와 신앙의 무르익음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데까지(에베소서 4장 13절)” 이르는 단계를 의미한다. 여기서 저자는 여러 명화를 보여주면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그림을 보면서 읽으니 더욱 생생하게 그 이야기가 머릿속에 떠올랐다. 그리고 우리 안에 숨어있는 마르다의

성향이 부지불식간에 튀어나와 얼마나 자주 나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지 떠올랐다. 그리고 마음에 찔림을 느꼈다.

나도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믿음을 혼동할 때가 많은 것 같다. 하나님을 위해 하는 일을 하나님 존재 자체를 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오류에 얼마나 자주 빠지는지 모른다. 그것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중요한 포인트이다. 우리는 가끔 우리가 하는 일이 모두 잘 되기를 바란다. 성공적인 사역과 열매를 바라는 나머지,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경청하는 것이다. 과연 내가 지금 당장 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되었다. 하나님 그분인지 아닌 나의 헛된 영광인지 말이다. 이 부분을 읽고 나는 지금 내가 커리어적으로 원하는 것을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기로 했다. 그리고 교회에서조차 내가 원하는 대로 쓰임 받지 못해 불만이 쌓여가는 내 모습을 발견했는데 그것 또한 내려놓기로 하였다. 앞으로 내가 원하는 것만 구하는게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항상 점검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가져야겠다고 다짐했다. “예수님을 눈으로만 볼 때는 한계가 있습니다. 귀로 들어야 진짜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분의 말씀으로 알아보는 사람이 진짜 신앙인입니다.” (123쪽) 저자의 말대로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대화는 신앙 성장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부분이다.

3부에서 저자는 걷는 것의 의미를 다시 숙고한다. 예수님의 “이타적인 걸음”은 곧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섬김의 행위였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 걸으신 순례의 길이였다. 예수님이 걸으신 거리를 보니 깜짝 놀랐다. 저자에 따

르면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계시는 동안 지구 한 바퀴 정도의 거리를 걸어 다니셨다고 한다. 그것은 십자가와 함께 곧 그분의 헌신과 희생이 얼마나 크고 넓었는지를 보여준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정말 바쁘게 하루하루를 보내셨던 것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이웃들의 필요에 성실히 응답하시기 위해 그 먼 길을 홀로 묵묵히 걸으셨다.

그렇다면 우리는 평소에 얼마나 걷고 있을까. 흔히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루에 만보 이상 걷는 것이 좋다고 얘기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건강의 유익과 같은 순전히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 주로 걷는다. 하지만 걸음은 연결, 곧 만남을 전제로 했을 때 비로서 그 의미가 완성되는 것 같다. 관심과 사랑을 품고 예수님이 나아가셨던 것처럼 걸음은 결국 다른 이들을 섬기기 위한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이 책을 다 읽을 즈음에 그만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말았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한 번씩 코로나에 걸려서 고생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나는 관찰을거라고 자만했었는데 아내가 일터에서 감염자와 접촉하는 바람에 결국 온 가족이 알게 되었다. 고열과 근육통 때문에 열흘이 넘게 집에서 자가격리를 해야만 했다. 증상이 미미했던 초기에는 그동안 처리하지 못했던 일도 하고 여러가지 계획을 세웠지만 거의 2주동안 그렇게 비생산적으로 시간을 보내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 입맛이 없어서 밥도 제대로 먹을 수 없었고 몸살이 심해서 밤마다 잠을 설쳤다. 책을 읽기는커녕 하루 종일 잠다한 영상만 보면서 시간을 보냈다. 자유롭게 밖에 나가서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없어서 답

답하기만 했다. 격리 기간이 길어지자 우울해지고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아내와 딸도 아팠기 때문에 가족들 중 어느 누구도 우리 집에 도와주러 올 수 없었다. 아픈 자들이 서로를 챙기는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 가족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 가끔씩 문 앞까지 음식을 가져다 주신 어머니의 배려가 있었기에 그나마 빨리 회복할 수 있었던 것 같다. 뉴스에서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팬데믹이 끝났다고 선언했지만 우리를 포함한 많은 이들이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아파하고 신음하고 있었다. 질병 때문에 몸과 마음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되면서 인간이 자연 앞에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새삼 깨닫게 되었다. 우리는 결코 홀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 우리는 함께 먹고 듣고 견도록 지음 받은 존재들이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나도 누군가가 함께 음식을 먹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같이 오랜 시간을 보내줘서 신앙을 찾게 되었던 것 같다. 그러니 함께 먹고 듣고 걷는 행위는 어쩌면 예수님이 우리 모두에게 원하시는 섬김의 모습이 아닐까 싶다. 이재철 선생님의 책을 오랜만에 읽으니 다시 그분의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하게 들리는듯해서 좋았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 책을 권하고 싶다.



Advertisement for Joon Mo Myung Gastroenterology. Includes text: '여러분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빛이 되겠습니다', '기분좋은 만남, 정성을 다하는 명준모 위장내과 최선을 다하여 최고의 진료를 약속드립니다.', '진료과목: 무통 위 내시경, 무통 대장 내시경, 조기 위암, 대장암, 식도암 진단, B형, C형 및 각종 간염 진단/치료, 알코올성 간염, 간 조직검사, 지방간, 각종 소화기 질환, 최신 특수컴퓨터 비디오 내시경 시설', '메디케어 및 각종보험 취급', '주소: 154-08 Northern Blvd. Suite 2K(154가 노던 코너) Flushing, NY 11354. TEL: 718-445-0200 FAX: 718-445-0226'.